

발간 등록번호  
76-901000-000008-06

2008 **5** 제183호(통권 402호)

# 장학월보

THE GYEONGNAM SUPERVISORY BULLETIN

고유한 정신문화로 인간성 회복 교육을 합시다 / 교육감

경남중등윤리교과교육연구회 / 문철수

장학특집 - 효행교육

전문가 초대석 / 성공적인 부동산 거래를 위한 법률상식



경상남도교육청  
GYEONGSANGNAM-DO OFFICE OF EDUCATION

장/학/갯/러/리





# 주남저수지



쌀쌀한 바람  
옷깃을 여미게 하고  
따끈한 녹차라도 한 잔  
해질녘 늦가을  
노을이 산자락 걸터  
이맘 때 새들의 패션쇼

“바로 그때”  
이끼 낀 갈대 숲 사이  
물가나 논으로 겁 없이  
출랑출랑  
먹잇감 찾는 겨울 철새들

인기척에 놀라  
하늘로 날아오르는 장관  
창공에서 무희  
아슬아슬 짝 끼는 유족  
통일을 향해  
오늘도 자유의 날개 짓  
“찰락 찰락”

가슴팍으로 달려드는  
미소 띤 늦둥이  
엄마 팔에 안겨  
망원경속에 통일의 새!

저 독으로 몸에 맞춘 듯  
잘 어울리는 한 쌍  
또 다른 사람 눈을 피해  
낙엽을 밟으며 사그락 사그락  
적막과 고요가 밀려온다.

권두언 >>



# 고유한 정신문화로

가정은 어느 곳에서나 사회를 이루는 근본틀입니다. 우리나라는 가족에 대한 애정이 유독 많은 나라여서 가족간의 유대감이 두텁고, 가정교육을 중요시해 왔습니다.

한 나라의 문화는 국민적 힘의 총체입니다. 또한 고유한 문화는 그 토양에서만 뿌리를 내립니다. 그러므로 다른 나라 문화를 가지고 우리 문화를 재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문화는 우리의 관점에서 문화를 판단하고 가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외국의 문화는 아무리 독특하고 좋아도 그것은 그 나라의 것에 불과합니다. 문화의 본질을 외면하고 그 외양만을 본떠 들여와 우리 것으로 채우는 것은 발전이 아니라 자신을 버리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사회는 상하좌우의 다면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의 다면적 관계를 잘 묶어주는 인간관계가 예절입니다. 효와 공경과 신의는 가정과 사회에서 인간성 회복을 위해 우리 사회가 펼쳐야 할 운동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염려하는 학교폭력, 성폭력을 비롯한 각종 인성교육도 서양식 교육관을 접목해서는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높은 정신 문화는 다른 나라와 교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토양 속에서 싹 틔운 도덕과 윤리를 바탕으로 교육을 해야 올바른 자아를 형성합니다.



# 인간성 회복 교육을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은 우리의 역사부터 깊이 알고 문화 속에 녹아있는 고유한 숨결  
부터 제대로 읽어내야 하며, 이를 보존하고 발전시켜 한국인다운 자아와 정체성을  
가진 학생들로 성장하는데 선생님들께서 앞장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 5. 1.

경상남도교육감





# 2008년도 경남교육 기본 방향

## 교육 지표

능력있고 창의적인 세계시민 육성



## 교육 시책

- 학생이 행복한 교육 -

- 사랑과 존경이 넘치는 인간 교육
- 소질과 적성을 살리는 인재 교육
- 지식강국 기반을 다지는 정보화 교육
- 도민이 참여하고 만족하는 교육 행정



## 역점 과제

- 인격을 존중하는 생활지도
- 체험중심의 친환경교육
- 독서·논술교육 강화
- 창의성교육 강화
- 무상교육 지원 확대

2008 5 제183호(통권 402호)

The Gyeongnam Supervisory Bulletin

# 차례

- 1 장학갤러리
- 2 권두언
- 6 장학칼럼
- 8 기획시리즈
- 12 **장학특집** 효행 교육
  - 주남저수지 / 김철민
  - 고유한 정신문화로 인간성 회복 교육을 합시다 / 교육감
  - 자율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교육 / 김승오
  - 경남중등윤리교과교육연구회 / 문철수
  - 정보화 사회의 효행교육 / 강재인
  - 효행교육의 방향 / 강광호
  - 효에 눈 뜨는 가례 효동어들! / 이서연
  - 효 실천 약속제 운영을 통한 효행의 생활화 / 최두석
  - '다짜' 선생님 / 장정임
  - 사·제·친 동행 봉사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 이선길
  - 성공적인 부동산 거래를 위한 법률상식 / 김현규
  - 교원의 정신건강(5) / 이재경
  - 단소, 더 쉽게 가르쳐 보자 / 김순열
  - 협동학습의 첫걸음 기초구조를 알아! / 이인섭
  - "샘들은 내보고만 그래요." / 노미애
  - 사이버가정학습 영어콘텐츠! / 박상섭
  - 다목적 서버실 구축 운영 / 이영근
  - 교원 미당 - 인사하는 습관을 기릅시다 / 김만희
  - 학부모 미당 - 훌쩍 자라버린 아이를 바라보며 / 김현자
  - 학생 미당 - 사람을 더 믿는 삶 / 강유림
  - 어린이를 살리는 문학 외 3편
  - 등나무 / 이명숙
- 30 전문가 초대석
- 35 수업기술 나누기
- 39 교육정보
- 45 현장포커스
- 49 참여마당
- 55 향기나는 서가
- 57 교원지상갤러리

▶ 표지 사진 / 박재철(마산 호계초등학교)

장학월보는 교육공동체와 함께한 교육 전문지로서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소망합니다.

※ 보내실 곳 : 641-719 창원시 중앙로 149  
경상남도교육청 초등교육과(장학담당)  
장학월보 담당자 앞  
이메일:janghak@gnedu.net

2008년 5월 1일 발행

- 발행인 : 경상남도교육감 권정호
- 총괄기획 : 장학담당장학관 임성택
- 편집주간 : 초등교육과 장학사 심광보
- 편집위원 : 김만호 박재철 박성년 전미화
- 인쇄 : 문성인쇄사 (055) 282-9922

자율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교육



김 승 오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정책보좌팀 장학관

국가경제정책에서 ‘성장론과 분배론’ 과의 갈등은 정권의 변화에 따라 집중과 선택의 정치적 스펙트럼을 형성하고 있다. 국가교육정책에서도 ‘수월성과 평등성’, ‘분권화와 집권화’의 경쟁하는 가치는 교육 관련 스테이크홀더(stakeholder)들의 뜨거운 감자였고, 지금도 갈등의 중심에 있다.

새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는 한마디로 “학교의 자율과 다양성”을 살리는 것이다. 교육은 본질적으로 획일적인 잣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성을 존중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최근 학교자율화 문제로 온 나라가 소용돌이에 빠져있다. 그동안 중앙정부나 교육청이 과도한 간섭과 통제로 단위학교의 자율성은 사실상 극히 제한적이였다. 이제는 학교구성원들에게 다양성과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자율권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물론 자율에는 책무성이 반드시 수반된다. 또한 다소간의 논란과 혼란도 있겠지만 학교는 충분히 감당할 능력과 시스템이 구축되었다고 본다.

우리교육청에서도 교과부에서 위임 또는 이양 받은 29개의 학교자율화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학교자율화 추진방향은 기본적으로 단위학교의 자율권을 최







대한 보장하는 것이다. 다만 비교육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거나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권의 침해, 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야기될 소지가 많은 분야는 도교육청 차원의 규정이나 지침을 마련하여 자율화 조치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할 것이다. 또한 단위학교에 재량권이 부여되는 분야도 학교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를 포함한 학교구성원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번 학교자율화 추진은 학부모·학생의 수요에 부합되는 단위학교의 다양하고 특색 있는 운영으로 우리 교육의 최대 현안인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경쟁력 강화, 유능한 인재 양성, 사교육비 경감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교육청에서는 2008년을 “학생 행복 교육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목표로 교육의 다양화·특성화·자율화, 교육기회의 보장과 확대, 교육의 수월성 추구, 외국어교육 활성화, 창의력 신장 교육 강화 등 다양한 교육정책 추진에 전력을 쏟고 있다. 『학생이 행복한 경남교육』은 지금까지의 정책 방향을 유지하면서 학교의 자율과 다양성을 통해 공교육 강화를 추구하는 새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경남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람마다 행복이라고 보는 기준이 다르다. 그래서 나에게서 행복한 일이 다른 사람에게서 불행한 일로 다가오기도 한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 다가가는 방법이 모두 다른 것 뿐이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일을 그렇게 하면 불행해진다는 등 간섭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다.

경남교육의 새로운 비전인 ‘학생이 행복한 교육’은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교육 기회와 즐겁고 신나는 교직문화를 조성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육공동체를 실현하며, 신뢰와 만족의 교육지원체제를 공고히 구축하여 교사는 가르칠 것을 제대로 가르치고, 학생은 배울 것을 제대로 배우는 학교다운 학교로 만드는 것이다.

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 힘써야 할 것은, 학교를 학교답게 만들어야 한다. 학교다운 학교는, 소외되는 아이가 없어야 하고 따돌림을 받는 학생이 없어야 한다. 학교다운 학교는 배우는 기쁨과 가르치는 보람이 가득한 학교가 되어야 한다. 학교다운 학교는 학생만 행복할 뿐만 아니라 선생님도 신나고 학부모도 즐거운 학교일 것이다.

경남교육은 지금까지의 관행으로부터 무한한 도전을 통하여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가고자 애쓰고 있다. 경남교육의 새로운 비상을 위해 교육공동체 모두의 협조와 능동적인 동참을 기대해 본다.

# 경남중등윤리교과교육연구회



문 철 수 연구회장  
의령고등학교 교장

## 1. 연구회 구성

경남중등윤리교과교육연구회는 경남의 중·고등학교 윤리·도덕교사들(남교사 130명, 여교사 119명, 총 249명)로 구성되어 있으며, 1998년 4월 25일 통영여자중학교에서 첫 공식 모임을 갖고 경남 도덕·윤리 교육의 발전에 뜻을 같이 하기로 하였다. 현재, 문철수 교장(의령고)이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신판기 교장(창원용호고)이 고문을 맡고, 김경미 교감(창원대방중)과 권우식 장학사(도교육청 중등교육과)가 부회장으로 연구회를 이끌어 가고 있다.



연구회 임원진



## 2. 연구회 발자취

연도	내 용	회장	회원수
1998	○경남중등윤리교과교육연구회 창립(1998.4.25) ○윤리·도덕교육연구회 실천사례집 발간 『인성교육의 발전방안』	구남중 이용결	217
1999	○경남윤리교육연구회 세미나 ○실천사례집 발간 『倫理·道德教育의 發展方案』	통영여중 박윤식	245
2000	○세미나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대비 교육의 방향과 교수방법』 ○실천사례집 발간 『인성교육의 발전적 방향』	반송여중 김동길	100
2001	○세미나 『현대정보화 시대에 대응하는 인간성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	반송여중 김동길	238
2002	○세미나 『ICT활용을 통한 도덕·윤리교육의 활성화 방안』	반송여중 김동길	169
2003	○세미나 『ICT활용을 통한 중학교 도덕 학습자료 개발』	반송여중 김동길	152
2004	○도지정연구과제 『제7차 교육과정의 정착을위한 중학교 3학년 도덕과 ICT활용 교수·학습과정안 개발』 ○세미나 『제7차 교육과정 정착을 위한 교과운영 방안』	김해대청고 신판기	193
2005	○도지정연구과제 『제7차 교육과정의 정착을 위한 중학교 도덕과 ICT활용 교수·학습과정안 개발-중2도덕교과서』 ○세미나 『윤리교과 인권교육』	의령고 문철수	199
2006	○세미나 『윤리교과 교재 개발 및 교육방법 토의』	의령고 문철수	205
2007	○도지정 연구과제 『도덕교과서를 통해 배우는 심화보충 논술자료 개발』 ○세미나 『도덕윤리교사와 논술교육』	의령고 문철수	227
2008	○도지정 연구과제 『교사와 학생이 꺼려하는 50주제를 손쉽게 해결해 주는 ‘윤리와 사상’ 학습자료』	의령고 문철수	249

### 3. 주요 활동

윤리교과교육 연구회는 경남의 중·고등학교 도덕·윤리교사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학습자료 개발, 수업개선, 인성교육 등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정보를 공유하는 의사소통의 장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매년 3월 정기총회를 통해 한 해 동안의 연구회 활동을 계획하고 여름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전회원이 참



하계 세미나

가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여 당면한 윤리교육의 현안, 새로운 도덕윤리 교육방법, 최근의 도덕윤리교육 관련 논문, 도덕윤리교육관련 연구학교 성과 등에 관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의견교환으로 도덕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도덕윤리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도지정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도덕수업은 교과서 중심의 수업보다는 학생의 감성과 정서를 자극하고 실천의지를 기르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는 교과이므로 2004년과 2005년도의 도지정 연구과제로 도덕과 ICT학습자료를 개발하였다.

최근에 우리 교육계에 화두로 논술이 떠오르면서 교사들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이 당혹해 하고 있다. 논술의 그릇은 글 쓰기이지만 내용물은 인간과 사회 그리고 자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할 때, 도덕·윤리 교과서는 논술의 보물창고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2007학년도 도지정 연구과제로서 <도덕교과서를 통해 배우는 심화보충 논술교육자료>를 개발하였다. 이 교재는 교과서를 활용하여 논술 학습자료를 개발하였기에 도덕수업을 통하여 논술교육을 할 수 있고, 또 논술수업을 통해서 도덕·윤리 교육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여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만족을 주는 자료이다.



2007. 도지정 연구과제

### 4. 앞으로의 활동

#### 가. 교사와 학생에게 꼭 필요한 학습자료 개발

2008학년도 도지정 연구과제는 「교사와 학생이 꺼려하는 50주제를 손쉽게 해결해 주는 『윤리와 사상』 학습자료 개발」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교과서인 『윤리와 사상』 교과서를 10가지 학습자료(기본학습자료, 보충학습자료, 심화학습자료, 참고학습자료, ICT학습자료, 동영상자료, 기출문제·확인문제·심화문제개발, 서술형·논술형문제개발, 학습지도안, 참고도서·참고사이트)로 개발하고자 한다. 이러한 자료를 개발하기 위해 학생이 힘들어 하는 학습주제가 무엇인지 창원신월고, 마산여고, 김해대청고,



의령고 3학년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또 우리 연구회원 50명에게 수업하기 힘든 학습주제가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응답 27명), 교사와 학생이 공통적으로 힘들어 하는 학습주제 50개를 선정하였다.

이러한 도지정 연구과제의 설정은, 돌이켜보면 매년 연말에 교과연구회에서 두꺼운 학습자료를 개발하여 학교에 보급하였지만 해당교과 선생님의 책꽂이에 꽂히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유인즉, 개발된 학습자료가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통신망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라는 것이다. 각 연구회에서 3월초에는 의욕적으로 학습자료 개발에 나서지만, 시간과 학교의 업무에 쫓기다 보면 교사와 학생에게 필요한 학습자료 개발이 되기보다는 개발자가 개발하기 쉬운 학습자료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으나 하는 반성에서 시작되었다.

#### **나. 한국윤리사상의 뿌리를 찾는 회원답사**

2008학년도에는 하계세미나와 연말 보고회에 그치지 않고 방학을 이용하여 <한국 윤리사상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주제하에 우리나라 윤리사상이 싹이 트고, 발전한 유적지와 문화현장을 답사하는 연구회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그 첫 답사지로 퇴계 이황의 유적(안동민속박물관 - 국학진흥원 - 도산서원 - 퇴계 종택 - 퇴계 태실)을 찾는 것이다. 아마도 이러한 답사를 통해 교사들은 수업 시간에 더 풍성한 학습자료를 들고 교실로 향할 수 있을 것이다.

#### **다. 새 홈페이지 개설**

기존의 경남교육연구정보원에 속해 있는 교과연구회 홈페이지를 더 이상 활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경남의 도덕·윤리 교사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수·학습의 장을 마련하고자 새로운 홈페이지를 개설할 예정이다.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와 정보 그리고 회원간의 활발한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경남 도덕·윤리 교사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도덕·윤리 교육의 발전을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공간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6월 초순에 공개할 예정이다.

# 정보화 사회의 효행교육



강재인  
마산교육청 교육과장

## 1. 프롤로그( prologue )

몇 년 전으로 기억된다. 각 학교에 장학지도를 나갈 무렵이었으니까 아마도 4월말, 5월초 쯤이었으리라. 국어수업을 하는 6학년 교실에서 수업자료로 쓴 플래시송이 제법 눈길을 끌었다. 연인들의 사랑을 전하는 11월 11일 빼빼로데이,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3월 14일 화이트데이, 하지만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날, 그날은 매일 8일 누룽지데이라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이었다.



왜 하필이면 부모님과 누룽지를 연관시켰을까를 아이들이 토론을 통해 해결하는 수업내용이었던 것이다. 10여 분간의 토론을 통해 도출해낸 결론은 햄버거나 피자 등의 인스턴트와는 달리 누룽지를 굽고 끓이는 과정의 정성이 부모님의 마음과도 같아서 부모님과 누룽지를 연관시켰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중국 고서속의 낯선 이야기를 들며 공자왈, 맹자왈 효(孝)를 공부했던 우리와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 신선했었다. 누룽지데이 노랫가락이 흥얼거려질 정도로 말이다.



## 2. 정보화 시대, 효행교육의 필요성

21세기에는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 창의적인 인간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인간의 과학기술은 이제 신의 영역인 창조에까지 이르고 있으니 그 어느 때보다 인간의 도덕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인 것이다. 만약 도덕성이 상실된다면 인류는 엄청난 재앙 앞에 곧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도덕성의 시작, 우리 민족을 정신적 타락으로부터 지켜온 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효(孝)가 아닐까 생각한다. 효를 백행지본(百行之本)이라 하여 인간윤리의 근본이라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며, 이는 오늘날에도 변할 수 없는 진리이다.

하지만 오늘날 사회가 현대화되고 기계화되면서 효의 기능이 약화되었고, 그 결과 안식처인 가족의 근본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정보화만 부르짖다가 정보화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가치관의 확립이 소홀히 되어 점차 그 역기능이 발생되고 있으며, 웃어른에 대한 공경심도 없고 심지어 자기 부모까지 살해하는 등 그 심각성이 매우 높아진 것이 현실이다. 제대로 된 효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사회는 인간소외, 인간성 상실 등 더 무서운 사회로 변해갈 것이다. 이제 효 교육은 가정의 책임이라 여겨왔던 의식을 버리고 가정, 학교, 사회가 연계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때이다.

## 3. 정보화 시대의 효행교육

이러한 효행교육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효 교육이 부족했던 원인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핵가족화의 결과 부모와 노인을 공경하기보다는 자녀를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둘째, 과거에는 대가족 제도에서 여러 세대가 어울려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노인들과 젊은이들이 어울릴 기회가 주어졌고 이를 통해 효 가치관이 교육되었다. 그러나 핵가족화된 가족 구조에서 조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가정이 보편적인 형태가 되었기 때문에 세대간 단절 현상이 생기게 되고, 효 가치관을 교육할 기회도 사라지게 되었다. 셋째, 경제적 능력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나이가 많은 노인들은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부양의 대상이 되는 상황으로 변질되어, 효와 밀접한 가치를 갖는 경로(敬老)의 자세도 가르치기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효라는 인간행위는 혈연관계인 부모와 자녀관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성, 보편성을 향하여 연계되어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즉 내 부모에 대한 효심이나 효행이라는 혈연관계의 틀을 넘어선 인간에 대한 보편적인 존경이라는 의미로 효 개념에 대한 패러다임을 확대하여야 하고, 이는 특히 고령화사회, 정보화 시대로의 변화에 따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고 계승시켜야 할 신(新) 효 문화로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각급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효행 교육들, 예를 들면 가족 역사소개 팸플릿 만들기, 효행일기 쓰기, 부모·조부모와 함께하는 놀이대회, 노인 강사 초청 강의 및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와 학교가 연계한 경로잔치 등의 1회성 보여주기식 실천적 활동들에 앞서 효 개념 정립과 실천을 위한 부모 교육, 교과서 효 관련 내용을 젊은 세대에 맞도록 내용과 이미지의 변화적용, 가정과 학교에서의 발달단계에 따른 효 교육 등에 따른 고민과 개선이 있어야 비로소 신(新) 효 문화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1) 「효도하자닷컴(<http://www.hyodohaja.com/>)에서 펼치는 누룽지데이 캠페인이다. 이 사이트에서는 "효도는 아침에 스스로 일어나는 것", "효도는 노래방에서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노래를 불러드리는 것" 등의 작은 실천거리로서의 생활 효의 제시 및 각종 플래시와 플래시송으로 쉽게 접근하고자 하는 캠페인이 가득하다.

#### 4. 에필로그( epilogu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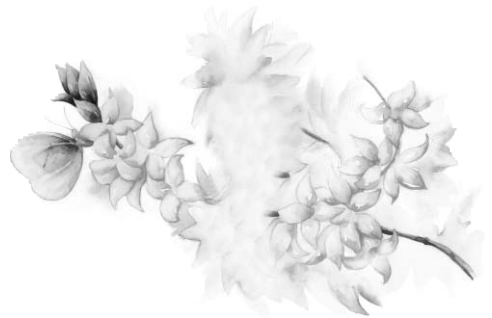


‘정보화사회의 효행교육’라는 글제가 주는 부담감(?)에 정보화의 첨단매체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에서 "효"라는 검색어를 입력해 보았더니 옆의 만화가 검색되었다. 혈연관계의 효 개념에서 사회적 관계로서의 확장된 효를 생각하고 주장하였던 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내 부모님의 영상으로 먼저 다가온다. 그렇다. 사회적 패러다임으로서의 효의 바탕에는 내 부모님이 있는 것이다.

‘효도하자 닷컴’에서 제시하듯 생활속의 작고 작은 실천들이 효도이며, 그 효도가 우리사회를 지탱하고 묶어주는 커다란 힘이 될 것임을 믿는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 “죽순 생각 안 나나? 택배로 보내주까?” 하시던 전화 속 음성이 떠오른다.

다가오는 주말, 부모님 주름진 얼굴 속 웃음을 뵈러 다녀와야겠다.



## 효행교육의 방향



강 광 호

경남인성교육연구회 총무  
(산청 삼정초등학교 교사)

항간에 떠도는 ‘아들 가진 부모는 길거리에서 죽고, 딸 가진 부모는 부엌에서 죽는다’라는 말을 잠시 되짚어 보면 과거의 가부장적 제도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이어서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게 한다. 또한 누군가가 들려주던 권효가(勸孝歌)는 그냥 웃고 넘어 가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 되어버렸다.

### 1. 들어가며

일찍이 예(禮)를 숭상해 다른 민족으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던 아름다운 전통을 지닌 우리 민족은 서구화, 산업화를 거쳐 지식 정보화 사회로 나아감에 따라 전통적 가치관이 혼란을 겪게 되고 개인주의가 심화되었다.

또한 가족형태의 변화와 맞벌이 가족의 증가 등으로 가정의 교육적 기능이 약화되어 자녀의 양육 및 가정 교육에 대한 부모의 역할 감소와 함께 가족간 대화 단절을 가져왔고 출세위주의 가치관은 패륜아를 낳았고, 인간성 상실이라는 비애를 가져다 주었다.

지난 수년간 언론매체를 가득 메웠던 비인간적인 사건들 예컨대 ‘부모의 재산을 갖고자 하는 욕심으로 자신을 낳아 준 부모님을 살해한 사건, 보험금을 노리고 형제자매와 자녀를 살해한 사건’ 등 이러한 사건들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인성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까닭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효행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까닭일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그 동안의 각종 보고서 등을 참고로 효행교육의 실태와 바람직한 방향을 정리해보고자 하였다.



## 2. 효행교육 살펴보기

### 가. 교육과정에 나타난 효행교육

효행교육을 교과와 관련짓는다면 가장 먼저 도덕과를 꼽을 것이다. 이에 도덕과 교육과정을 살펴본 연구물들 중에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효 교육은 초등학교 3학년에서 한 시간만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이고 그 밖에 초등학교와 중, 고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효도교육에 관한 프로그램이 들어있지 않다(정승천, 2005)고 주장 하고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연구(이진화, 2006)에서는 도덕교과서의 전체 내용은 제6차 교육과정에 비해 축소되었지만 효와 관련된 내용을 더 많이 배정하여 우리의 전통문화인 효에 대한 지도의 수준을 더욱 심화하였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렇듯 효행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때 현장에서 효행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잡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 나. 각종 효행교육 프로그램들

학교현장에서 교과지도 시간을 제외한 별도의 효행교육 시간을 마련하여 효행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거의 없을 것이다. 물론 교육과정 운영상 별도의 시간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다. 고작해야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한 효행관련 행사나 운동회 종목에 일부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전부일 것이다.

그 외 연구학교로 지정 받아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개인연구대회를 목적으로 학급 단위의 효행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사례는 있을 것이다.

각종 연구 보고서 등의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생활본 제정, 일기쓰기, 가족신문 제작과 같은 문예행사, 토론회, 효행관련 체험활동, 독서활동 등 수없이 많은 프로그램들을 소개하고 있지만 일회성 행사위주로 끝나고 있으며 지속적이지 못하여 효행생활의 내면화에는 실패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게 사실이다.

### 다.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최근 정부에서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여 자치단체와 각급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국가적 차원의 효행교육 실시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그 주요내용은 효행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영·유아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지정하였으며, 이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효행우수자 선정 표창과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비용 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책으로 마련되어 있다.

## 3. 효행교육의 바람직한 방향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효행교육의 방향은 우리의 미풍양속인 효를 적극적이고 획기적으로 수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덕과의 효행영역을 확대하고, 구체적인 문제사태와 연관해서 지도해야 하며, 학습소재 개발, 내용에 맞는 수업방법 등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과지도를 통한 효행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나 도덕적 행위의 강요는 의미가 없으며, 학생들에게 도덕적 자아를 형성시켜 주는 방향으로 생생하고 감동적인 사례를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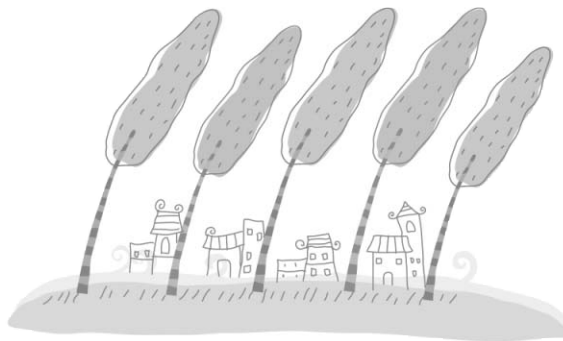
또한 특별활동을 통한 효행교육으로 효경글짓기 대회, 효행자녀 선발대회, 노인정 방문, 1일 부모님 일터 체험 등 효와 관련된 체험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효의 가치를 깊게 이해할 수 있고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도 북돋아 줄 수 있어야 한다.

행·재정적 차원에서는 청소년들의 비행을 예방하고 올바른 도덕성과 효 사상의 내면화를 위한 감동적인 효행사례를 발굴·홍보와 계몽운동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의 전통적인 효행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성세대들의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가정에서는 자연스럽게 가족끼리 서로 이해하는 속에서도 엄한 훈육이 함께 있어야 할 것이며,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의도적이고 교육적인 태도를 정립해야 할 것이다.

## 4. 나가며

아무리 사회가 변화하더라도 그 속에 남아있는 참다운 가치는 쉽게 변하지 않듯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효의 가치’ 또한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적으로 운영하여 학생 스스로가 ‘효는 작은 행동에서부터 시작됨을 깨닫고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행동으로 실천’ 되어질 때 우리 사회는 더욱 밝아질 것이다.



# 효에 눈 뜨는 가례 효동이들!



이 서 연  
의령 가례초등학교 교장

## 1. 들어가며

효는 우리의 오랜 전통이며 미덕이다. 우리 선조들은 사람됨의 그릇을 재는 척도로 효를 으뜸으로 꼽았다. 효야말로 덕의 근본이며, 가르침의 원천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孝經』에 이런 말이 있다. ‘아버이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타인을 사랑하는 것은 어긋난 덕이요, 아버이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타인을 공경하는 것은 어긋난 예이다(不愛其親而受他人者謂之悖德 不敬其親而敬他人者謂之悖禮).’ 이러한 전통에도 불구하고 요즘 인륜도덕이 무너졌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나온다. 그러므로 학교는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과 실천을 통하여 효에 대한 도덕적 가치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태도를 신장시키는데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는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와 연계하여 효 실천 의지 확산과 효의 생활화로 가정에서의 어른 공경은 물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바른 인성이 길러지도록 해야 한다.

## 2. 시작은 작은 것에서부터

전형적인 농촌의 작은 학교인 본교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생활하는 가정이 많은데도 의도적인 교육에 의한 효 교육의 기회가 부족하여 학생들의 경로 효친 정신이 미약한 실정이었다. 학생들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방법과 의미를 몰라 효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어 학교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하는 『맞춤식 효 체험활동을 통한 효의 생활화』라는 주제로 경상남도교육청 지정 효행교육 시범학교를 운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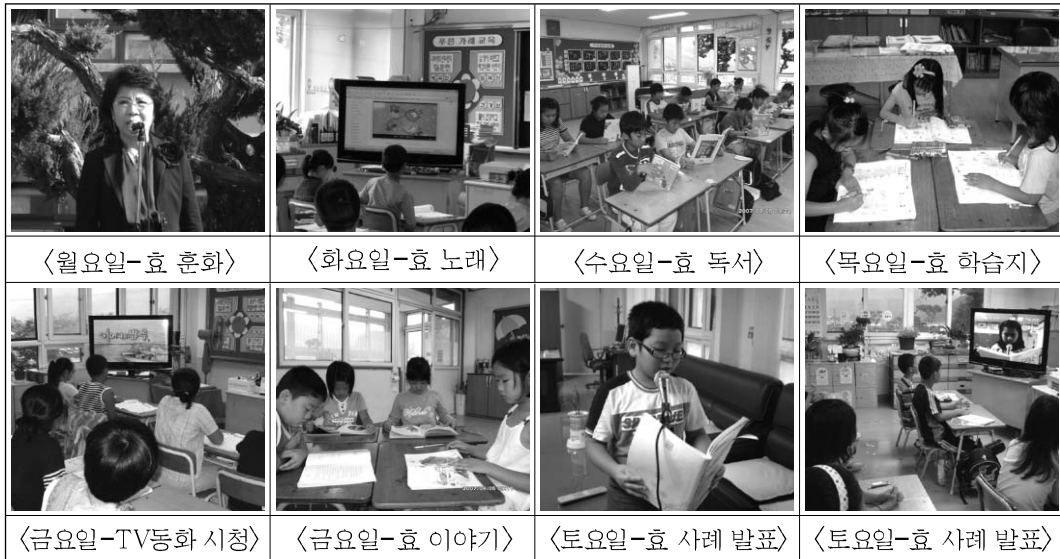
시범학교 운영 과제 중 특히 아침 시간을 활용한 ‘효에 눈 뜨는 아침활동’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한다.



구분	활동주제	실시방법	활용자료
월	효 훈화	월요일 아침 조회시간 효 훈화	효 훈화 자료
화	효 노래	학년별 실시 / 3회 이상	효 노래(효 실천 기록장)
수	효 독서	사제동행 독서하기	학년별 효 필독도서
목	효 학습지	효 학습지 하기	효 학습지(효 실천 기록장)
금	TV동화(1, 3주)	TV동화 시청 후 소감록 쓰기	영상물(행복한 세상)
	효 이야기 읽기(2, 4주)	효 이야기에 대한 생각 느낌 쓰기	효 이야기(생활 속의 효 이야기)
토	효 사례 발표	학년별 운번제(1명씩)	효 일기(효 실천 기록장)

〈아침 활동 내용〉

매일 아침활동(08:40~09:00)시간과 아침 조회 시간을 활용하여 효 학습활동 7가지를 1주일 주기로 하되 금요일은 2개의 활동을 격주로 실시하여 학생들이 보다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등교 시간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열어나갔다.



이런 다양한 효 관련 아침활동은 학생, 교사 모두에게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반성하게 하고 실천 의지를 다지는 시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효 습관 형성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월요일 아침이면 초롱초롱한 눈으로 효 이야기를 듣는 아이들의 해맑은 얼굴, 교실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효 노래 소리에 얼굴 한 가득 미소를 담고 하루를 시작하는 화요일, 우리 이웃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찾아보는 금요일의 TV동화 시청, 생활 속의 작은 실천을 다른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토요일의 효 사례 발표까지. 아이들과 함께 시작하는 아침활동은 '이렇게 효를 마음속에 심어가는구나, 효라는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었다.

### 3. 나오며

孝.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식이 부모를 업고 가는 형상이다.

물질적인 봉양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짐을 덜어 드리는 것,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함께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효행일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진심으로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진정한 효의 시작이 아닐까?

따뜻한 봄이 언제 왔는지 미처 돌아볼 겨를도 없이 더운 여름이 성큼 다가오고 있는 오늘도 생활 속의 작은 실천으로 효에 눈뜨는 가래 어린이들의 착한 효심이 우리 어른들의 얼굴에 유쾌한 에너지를 전해 주고 있는 듯하다.



# 효 실천 약속제 운영을 통한 효행의 생활화



최 두 석

하동 황천초등학교 교장

## 1. 이런 필요성으로

본교는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2007학년도부터 ‘명심보감의 가르침을 통한 바른 품성 기르기’ 1교 1특색교육으로 정해 입학부터 졸업까지 총 83편의 주옥같은 명심보감 글귀를 익혀 기본예절 습관 형성은 물론 근면, 성실, 효도, 신의, 질서 등의 덕목들을 지도하고 있다. 이러한 인성교육의 든든한 기반 조성을 바탕으로 올해에는 ‘효 실천 약속제 운영을 통한 효행의 생활화’라는 주제로 지속적이고도 체계적인 효 교육, 실천하는 효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효를 바탕으로 한 인성교육을 본교의 특색과 전통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

그동안 인성교육을 위한 교육현장의 다양한 노력이 지극히 형식적이고 일회성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거울삼아 명심보감을 활용한 기본예절 교육의 강화, 학생 개개인이 처한 환경과 흥미와 눈높이에 맞는 효행 프로그램의 개발, 남이 시켜서가 아닌 자발적 동기에 의한 효행의 실천,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효 교육에 동참하는 시스템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 2. 씨앗을 심고 가꾸며

### 가. 가정환경 실태조사 및 지속적인 상담활동 실시

효과적인 효 교육을 위해 학생 개인별 가정환경을 서면 또는 직접 면담, 전화 등을 통해 조사하고, 매월 1회 이상 학부모와 상담을 실시하여 가정과의 연계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노력은 32%에 달하는 결손가정 학생들을 이해하고, 배려하여 효 교육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나. 효 실천 다짐과 반성의 날 운영

학년 초, 매월 초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효 실천과제 외에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흥미와 눈높이에 맞게 효 실천 과제를 설정하여 담임선생님이나 부모님과 약속한 다음 실천하게 하고, 학년 말, 매월 말 그 결과를 반성하고 새로운 다짐을 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효 실천력을 높이고 있다.

### 1) 학년초 효 실천 다짐식 실시

3월 27일 학부모 총회에 '모두가 효자·효녀 되기 위한 효 실천 다짐'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교생, 학부모, 교사가 모여 효 실천 다짐식을 가졌다. 이날 학생들은 학교 공통 효 실천과제인 '가로내 효행 수칙 5가지' 외에 개인별 효 실천 과제 5개를 부모님과 함께 선정하여 여러 선생님들과 부모님 앞에서 공개 다짐하였다.



### 2) 가족 효 타임캡슐제 운영

가족회의를 통해 일년 동안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효 실천과제를 정하여 효 다짐식에서 공개 약속하였으며, 타임캡슐에 봉한 후 일년 뒤 열어 그 성과를 확인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이런 활동은 효 교육에 가족을 동참시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효를 실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3) 매월 효 실천 다짐 및 반성의 날 운영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 그 달의 효 실천과제를 정하고 공개 실천을 다짐한 후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자신이 한 달 간 실천한 효행에 대한 평가와 반성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 다. 토요일휴업일 가족 사랑의 날' 운영

모든 효의 실천이 궁극적으로 가정에서 이루어지므로 매월 2회의 토요일휴업일을 '가족 사랑의 날'로 지정하여 학교에서 배운 효 의식 및 내면화된 교육을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때 실천 과제는 일률적으로 정해주기 보다 학생 개인별 가정환경에 맞는 과제를 가족과 의논하고 스스로 정하게 하여 자율적인 실천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참여도와 흥미를 높이기 위해 효 실천쿠폰을 발행하고, 성과가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칭찬쿠폰을 제공하고 있다.

<토요일휴업일 가족사랑의 날>  
**효 실천 쿠폰**  
저는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요도를 아겠습니다.

【사용 기간】	받고 싶으신 효도 내용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자녀가 실천하		
4월 11일 (금)	면 확인을 해 주시고 간단한 소감도 적어주세요.		
4월 13일 (일)	♡	받고 싶으신 효도	받으신 후 소감
효도 효 실천 쿠폰을 가족사랑의 날 활동기록지에 붙이고 간단한 소감을 적어줍니다.	1	심부름 타기	안녕나 "예!" 할때 바로 심부름하러 나가
	2	일찍 잠자리에 들기	고급한 더 빨리 자라!
확인	평가(√표)		비밀기여
	√	중	○

**라. 효도 지수 자기 평가제 실시**

효도 지수평가표에 따라 스스로 점수를 합계하여 한 달간 효행의 실천 정도를 알아보고 칭찬, 격려, 반성의 시간을 가져 새로운 효 실천 의지를 다지고 있다.

**3. 익어가는 열매들**

학교의 일방적 제시가 아닌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흥미와 눈높이에 맞게 효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공개 약속하고 실천함으로써 흥미와 실천력이 많이 향상되고 있다.

효 실천 쿠폰 발행을 통해 부모님이 원하시는 효도를 실천하고 부모님의 평가와 확인을 받아오게 함으로써 가정과의 연계지도를 강화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칭찬 쿠폰을 제공함으로써 실천의지를 높이고 있다.

효 교육을 위한 지속적인 상담을 실시함으로써 가정과의 연계된 효 교육 자체가 어려운 결손가정 학생들을 배려하여 한 명도 소외됨이 없이 효 실천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4월 효도지수 평가표					
<괄함 O, 보통 □, 못됨 △>					
구분	실천내용	1주	2주	3주	4주
가문내 5 효행 수칙	존댓말과 문안인사				
	어제와 다리 주무르기				
	자기일 스스로 하기				
개인 실천 과제					
자기 평가 결과	영의비 합계	○의 합계(5점) □의 합계(4점) △의 합계(3점)			
	평점				
점수 판별	90~100 : 훌륭한 효자·효녀		80~89 : 효자·효녀		60~79 : 노력이 필요
나의 위치					
실천 후 느낀 점					
부모님 의견					부모님 확인
담당 의견					담당 확인



## ‘다까’ 선생님

장 정 임

양산 웅상중학교 교사

매년 신학기가 되면 늘 새로운 아이들을 만나게 된다. 아이들도 처음으로 보는 선생님, 선생님도 처음보는 아이들과 서로 인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를 서서히 알아가는 시간이 3월이다. 한 달, 두 달 지나 5월쯤이면 굳게 닫혀 있던 마음의 문들이 열리고 서로를 조금은 더 편안히 여겨서 허물없이 친근하게 지낸다. 하지만 아직 미성숙한 학생들은 교사와 학생 간의 선을 쉽게 허물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런 예는 사제 간에 오고 가는 말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무심코 내뱉는 말에 마음이 상하고 나아가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서 말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깝게도 해주지만 끊어지게도 한다. 동기 간에도 그러하지만 특히 윗사람을 대하는 말투는 예(禮)의 기본이 아닌가 싶다. 그러기에 본인은 효행 교육 중에서도 말하는 법을 가장 대표적으로 꼽고 있다.

요즈음 청소년들의 말투를 보면 어른들에게 ‘~요’ 라는 말로 끝을 맺는다. 특히 본인이 근무하는 학교는 경상도에 위치한 남학교이기에 이런 끝맺음은 자칫 매우 성의없어 보이는 데다 매우 버릇없이 대들 듯한 분위기를 풍기기까지 한다.

“○○야, 왜 숙제를 하지 않았니?” -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요.”

“어쩌다가 수업시간에 늦게 들어오니?” - “화장실 갔다가 왔는데요.”

“○○야, 장난치지 말고 똑바로 앉거라” - “장난 안 쳤는데요.”

교무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흑여 꾸중이라도 들을 일이 있어 불려오면 똥한 표정으로 “나만 그런 것 아닌데요”, “진짜 안 했는데요”, “기분 나빠서 그랬는데요.”

학생들은 아무 생각없이 평소에 그렇게 어른들에게 ‘~요’ 자를 붙이면서 이야기하지만 그 말투는 정작



어른 앞에 뱉어내는 말로 공손하지 못하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다. 공손하지 못한 말투는 공손하지 못한 행동으로 이어지기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대화를 주고 받는 당사자들은 당연히 화목치 못한 결과를 얻게 될 확률이 높지 않은가? 그래서 학생들의 이런 말투에서부터 행동이나 자세를 조금이라도 공손하고 상냥하게 만들어 보고자 본인은 항상 3월의 첫 두어 시간은 예절교육이라는 이름하에 오리엔테이션으로 문을 연다. 빠듯한 교과 진도를 생각하면, 두어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은 매우 과감한 시도라고도 할 수 있지만 1년을 학생들의 예의없는 언행으로 속이 썩는 것보다는 백배 낫다는 생각에 꼭 거치는 통과식이다. 오리엔테이션에서 본인이 예절을 지키기 위해 제시하는 실천사항은 네 가지이다.

첫째, 수업시작 시간 선생님보다 늦게 교실에 들어오지 말 것, 후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 늦게 오면 뒷문으로 조용히 들어와서 발소리를 내지말고 신속하게 앞 선생님이 계시는 곳까지 와서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보고할 것 - 일명(학생들과 신속한 의사소통을 위해 명사화한 이름) 육하원칙. 둘째,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섰을 때는 교과서, 노트, 필기도구를 정확히 준비하여 제자리에 앉아 있을 것 - 일명 셋팅. 셋째, 자기 주변으로 반경 1m이내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지 않도록 할 것 - 일명 반경 1미터. 넷째, 선생님께 말을 할 때는 무조건 끝맺음을 ‘~다’와 ‘~까?’로 할 것 - 일명 다까.

이 네 가지를 매 시간마다 검사하기가 귀찮을 때도 있다. 그래서 초임이었던 해에는 잘 하리라 생각하고 처음 2, 3주만 점검하다가 교과진도 관계상, 또는 귀찮아서 묵인하고 지나갔었다. 그러다 보니 한 달도 채 안 가서 도루묵이 되어 있는 아이들을 보게 되었다. 하지만 들을 때마다 거슬리고 들을 때마다 ‘내가 조금 더 부지런히 잔소리를 할 것을…….’ 하는 아쉬움이 남아 그 다음 해부터는 즐기치게 확인에 확인을 거듭하고 매시간 수업이 시작되기 전 2~3분은 이 예절 실천사항을 확인하는 데 시간을 할애한다. 교실에 들어서서는 순간 쓰레기를 점검하고 셋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를 즉석에서 부드러운 나의 손길로 통보를 해준다. 더불어 수업을 진행하는 중간중간 나의 질문에 ‘~요’자를 붙여서 대답하는 학생들에게도 귀찮지만 교실 구석구석을 친절하게 찾아가서 가볍게 꺾불을 만져주고 학생들의 비명소리를 즐겁게 듣는다. 그러다보면 어느새 그것이 재미있는지 서로 ‘~요’자를 붙여서 이야기하는 놈들을 지적하고 나에게 꼬박꼬박 알려주는 분위기가 된다. 난 또 그 기대에 부응해주기 위해 착실히 꺾불을 살짝 꼬집어준다.

신학기로부터 두달이 지난 현재까지 아이들의 말투는 적어도 내 앞에서는 조심스럽게 생각하면서 ‘~요’자를 붙이지 않고 말을 한다. ‘~요’자를 쓰지 않고 말하려고 내뱉을 단어들을 신중히 고르느라 생각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귀여워서 나도 모르게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교무실에서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다른 선생님을 뵈러 왔을 때도 옆에 내가 있으면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을 보고 고마운 마음을 느끼기도 한다. 사실 ‘~요’를 붙이면 더욱 거리가 가깝게 느껴지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좋은 영향을 가져다주는 것보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학생들에게 일명 ‘다까’로 말하게 하기 시작했다.

흔히,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신언서관을 든다. 신(身)은 의술의 발달로 다듬어질 수 있다. 서(書) 역시 컴퓨터의 발달로 그리 중요한 덕목이 될 수 없는 현실이다. 판(判)이야, 9년의 의무교육을 거치고 나아가 12년 혹은 16년을 공부하면서 누구다 다 터득해나가는 것이다.

언(言)!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어머니와 시각, 촉각, 후각, 청각으로 무언의 대화를 하고 웅알이를 거쳐 말이라는 것을 배운다. 하지만 약 15년이 넘어설 때까지 썩 훌륭하다고 판단할 만큼의 화법을 가지지는

못하더라는 것이다. 학생들이 교과 내용으로 말하기를 배우기는 하지만 그것이 몸에 배어서 언제라도 '툭' 치면 세련되고 공손한 말이 나오지는 않는다. 외국어를 배울 때도 열심히 외우는 것보다 체득하는 것이 더 쉽고 중요하다고 한다. 공손한 말투를 몸으로 익히고 실천하는 것이 실전에 효과적이므로 아이들이 나와 수업시간이나 나와 대화하는 중이라도 부탁하고자 시작했던 것이다.

부족하고 미미한 노력이지만 지금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나의 의중을 알아서 나중에라도 희미하게 나를 '다까' 선생으로 기억해줬으면……. 그들의 삶에 도움이 되고, 주변을 기분 좋게 하고 나아가 타인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게 된다면, 그것으로 매 시간 확인하는 번거로움과 그에 대한 부적보상의 귀차니즘을 씻어버리고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난 오늘도 복도에서 아이들에게 크게 외친다.

“안녕하십니까~?”



## 사·제·친 동행 봉사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이 선 길

마산 구암중학교 교장

봉사활동은 학생들의 머리, 가슴, 손이 함께 움직이도록 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써 그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봉사활동에서의 체험으로 도덕적 반성 및 성찰의 습관을 갖게 되고 덕의 습득에 있어서 필수적이며 긍정적인 역할모델들에 대한 관찰과 동일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가치를 지닌다.

이에 본교에서는 학부모지도단을 연계하여 체계적인 사전교육과 지역사회 복지시설인 소망원, 자성원, 사랑나눔의 집, 새길동산, 효능원과 소계민원센터, 삼성병원, 효도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의 살아 있는 교육의 장에서 사·제·친 동행의 다양한 봉사활동과 체험활동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능력과 개성을 신장시키고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고, 나아가 밝고 긍정적이며 진취적인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바 그 과정을 소개하면,

### 먼저, 학부모지도단을 조직하였다.

학생들의 동아리활동을 돕고 함께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안내자, 조력자의 역할 및 동반자적 위치를 다지게 하여 봉사활동의 효과를 높이며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도단을 구성하였다. 지도단 구성원은 봉사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부모 중에서 희망자를 선발하였다. 안은숙 자원봉사단장 외 총 40명의 단원이 5개의 부서를 조직하여 부서별 1명의 지도교사와 상시 협의 체제를 갖추어 활동 수행의 효율성을 기하였다.

### 전일제 계발활동과 연계한 학생 봉사활동 동아리를 조직하였다.

봉사활동 학생 동아리 조직은 학생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성하였으며 동아리별로 지도교사를

배정하여 봉사활동을 지도하고 특히 안전에 유의하게 하였다. 또, 지도교사는 학생들의 소감문을 읽고 바람직한 봉사활동이 실천되도록 유도하였다. 총 5개 반 105명의 학생이 동아리에 가입하여 활동에 참가하였다.

### 연수와 홍보를 통해 봉사활동 의식을 고취하였다.

봉사활동에 임하는 학생·교사·학부모지도단의 봉사정신을 내면화하고, 봉사활동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심성함양교육 및 봉사활동 전반에 대한 소양교육을 실시하였다. 학생과 교사는 경상남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협조를 얻어 외부 강사 초청강연(강사 윤필수 청소년 지도사)의 강의를 들었으며, 학부모는 한국시민자원봉사회 경남시민여단에서 실시하는 봉사교육을 받았다.



또한 봉사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매주 봉사활동에 대한 연수물을 제작하여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부착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경남신문 등 언론을 이용한 홍보활동도 하였다.

### 끝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에 대하여 사·제·친 동행 봉사활동을 전개하였다.

2007년 3월 26일 학부모 지도단 발대식을 시작으로 봉사 동아리를 통한 자율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하였는데 연간 34시간의 계발활동과 연계하여 일손돕기, 환경정화, 위문활동, 문화재 발굴교육, 지역사회 바로알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상세한 내용을 보면 마산 삼성병원 3, 5, 7, 8, 9, 10병동, 공급실, 중환자실에서 말벗 해드리기, 병실 청소, 도우미 역할, 수술을 위한 보조물품 만들기 보조 등을 하였으며, 효도병원 2층에서 7층까지 병동에서는 병실 청소, 창문 닦기, 침대 옮기기, 환자 씻어드리기, 휠체어 밀기, 말벗 해드리기 등의 활동을 하였다. 또 소망원과 자성원, 효능원에서는 실내·외 대청소, 전원의 잡풀 치우기, 코스모스 묘목심기, 화단주변 치우기, 잔디 관리, 폐기물 처리, 건물 주변 쓰레기 치우기, 유리창 닦기, 실내 유입된 빗물 제거하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으며 소재 민원센터에서는 문화재 발굴을 위한 사전교육도 실시하였다. 사랑 나눔의 집과 새길동산에서는 안마 해드리기, 장기자랑, 말벗 해드리기, 실내·외 청소, 환경 정화 등의 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인내심과 봉사정신 함양 및 바람직한 인성을 도모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봉사 활동 체험의 장을 지역사회로 확대한 결과 가정 및 지역사회까지 그 분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었으므로 학교와 가정 및 지역사회의 유대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특히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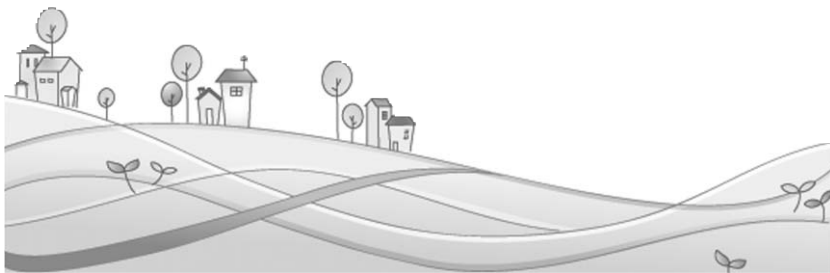




목할 것은 사회 복지시설 등을 통하여 경로효친사상 및 희생, 봉사, 양보, 사랑을 배우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다음 소개하는 학생의 소감문이 주는 감동을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전략)

삶은 달걀에 그림을 그려 그 달걀을 예쁘게 꾸미는 작업을 함께 하면서 누구의 그림이 더 예쁘다느니 누가 미술에 자질이 있느냐는 등의 대화를 나누며 내내 웃음꽃을 피웠다. 그분들뿐만 아니라 그 활동은 내게도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다. 한 순간 동심의 세계로 간 듯한 할머니들의 표정을 보면서 나는 그분들의 그 아름다운 표정들, 그분들을 닮은 예쁜 꽃들을 달걀위에 그려 넣었다. (중략) 간식을 먹여 드리면서 나이가 드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할머니들께서는 치아가 약하셔서 딱딱한 것도 거의 못 드시고 쿠키 같은 것도 정말 천천히 드셔야만 했다. 함께 할머니 시중을 들고 계시는 어머니를 보며 겁자기 더 효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생각이 들자 이 분들이 모두 나의 할머니인 것만 같이 느껴져 앞으로는 더 정성을 다해 이 분들을 도와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다음 봉사활동 시간에는 더 열심히 임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



전/문/가/초/대/석



김 현 규  
법무법인 서 경 변호사

## 성공적인 부동산 거래를 위한 법률상식



### 1. 머리말

최근 대법원에서 부동산 거래에 관한 중요한 판결을 내려 언론에 소개된 바 있는데 이번 호에서는 위 판결의 시사점과 아울러 성공적인 부동산 거래를 위한 법률상식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 2. 부동산 거래 사례

최근 대법원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이 일단 체결되면 계약금이 건네기 전이라는 이유로 어느 한쪽에서 마음대로 파기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 사건의 전말은, A씨가 2005년 경기도 용인시의 S아파트 한 채를 5억 원에 매입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집 주인 B씨는 외국에 머무르고 있었고 A씨의 장모 C씨가 B씨를 대신해 계약하였으며, C씨는 계약한 날 밤에 사위 B씨와 통화하면서 '집을 팔 의사가 없다'는 말을 전해 듣고 계약금을 받기 전이라는 이유로 이튿날 계약 파기 의사를 전달하였다.

하지만 A씨는 계약이 유지되어야 한다며 계약금 6,000만 원을 송금했고, B씨 측은 이 돈을 법원에 공탁하고 받지 않았는데 그러자 A씨가 '적법하게 아파트를 매입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집 주인이 계약금을 받기 전이라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며 서울지방법원에 집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지법은 'A씨는 집 주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배상받아야한다'고 판결했지만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계약금을 주기 전이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하지만 다시 대법원에서 '일단 계약을 하면 계약금을 주지 않았더라도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계약금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일단 계약서가 만들어지면 계약 내용을 양측이 모두 준수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는 것을 대법원이 명확하게 판례로 남긴 것'이라고 설명하고, 또 '부동산을 팔기로 한 사람이 계약금을 받았더라도 24시간 안에 돌려주면 합법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일부 부동산 업계의 관행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낭설'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보다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 3. 적절한 거래계약서 작성 필수

성공적인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는 거래계약서를 적절하게 작성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계약서라는 것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문서로 표현하는 것으로 분쟁이 발생할 때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됩니다. 그럼에도 부동산 거래계약서가 매우 허술하게 작성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가격은 대부분 고액이어서 그 피해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계약서가 더욱 중요하므로 거래 내용이 복잡할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4. 표준계약서 사용 시 주의사항

흔히 시중에 유통되는 표준계약서를 많이 사용하는데 인쇄된 내용이 무엇인지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계약서 공란에 대금, 기간 등 주요 항목만을 채우는 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심지어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 해당 계약에 맞는 적절한 계약 문구를 빠뜨리거나 실제 의도하는 계약 내용이 인쇄된 문구의 내용과 모순될 때도 있습니다.

### 5. 특별계약 사항란의 기재방법

표준계약서는 '특별계약사항'란이 계약서 하단에 2~3줄 정도여서 계약 내용을 자세하게 기재하기에는 불편합니다. 그래서 특약사항 몇 줄에 원하는 내용을 모두 담으려고 글씨를 작게 빼곡하게 기재하다가 공간이 부족하면 계약서 테두리 공간에도 조그만 글씨의 계약문구를 채우곤 합니다. 그러다 도무지 그 내용을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특약사항란이 부족하면 그곳에 '별지와 같다' 라고만 쓰고 별도의 용지를 붙여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자세하게 기재하면 됩니다.

또한 계약 당시에 거론되었던 사항들은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계약서에 별도의 서면으로 상세하게 표현할 필요도 있습니다.

## 6. 적절한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강조

이렇게 중요한 계약서 작성을 소홀히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법 규정과 계약 문구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분쟁 해결을 위한 법 규정이 모두 완비된 것으로 알지만 실제로는 법 규정(임의규정)은 분쟁 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근간만을 정한 것이 일반적이고, 그 밖의 세세한 부분은 서로 합의라는 형식으로 구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성공적인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는 적절한 계약서 작성이 가장 기본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관련법이나 재판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며,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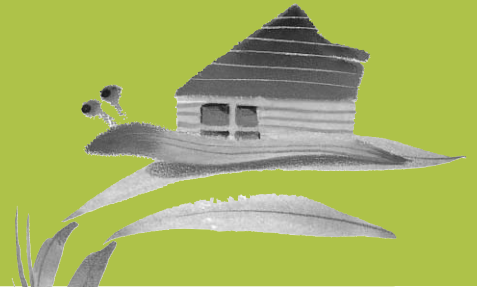
전/문/가/초/대/석



이 재 경

밀양 단산초등학교 교사 / 상담학 박사

## 교원의 정신건강(5)



너와 내가 만남으로 대인관계가 시작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학교 교육 현장에서도 교사-학생, 교사-교사, 학생-학생간에도 동일한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만남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과 질에 따라서 인간관계의 질과 의미, 학교의 내외적 분위기가 다르게 된다. 학교생활의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가 교사-교사, 교사-학생, 학생-학생간의 적절한 대화를 통한 인간관계 형성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대화는 학교 생활의 개인행동뿐만 아니라 학교 구성원간을 연결 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며 교사-교사, 교사-학생, 학생-학생들의 상호작용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대화는 각 개인과 학교 구성원의 응집력과 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본질적인 요인이다.

대화는 단순한 지식과 정보의 제공이 아니라 교사-교사, 교사-학생, 학생-학생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며 경험을 공유하는 상호작용이다. 인간에게 주어지는 환경이나 사건 자체는 매우 객관적이나 이를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관점에서는 매우 다양하고 주관적인 상태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대화는 서로 다른 이해와 해석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교사-교사, 교사-학생, 학생-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나눌 수 있는 의미해석을 만들어 내기 위한 학교 장면에서의 창조적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교사-교사, 교사-학생, 학생-학생 자신이 서로간의 관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노력을 목표 지향적으로 통일하고 계속 유지 및 발전시키기 위해서 대인관계에서 나타내는 다양한 변화요인을 파악하고 이해하며 동시에 학교 생활에서의 교사-교사, 교사-학생, 학생-학생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대화가 필요하다. 학교 장면에서 교사-교사, 교사-학생, 학생-학생간의 공동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표 지향적 대인관계 행동의 협동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필요한 요소로서 대화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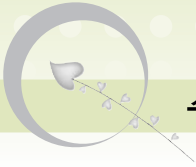
이러한 점들을 생각할 때, 학교 장면에서의 대화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교사, 교사-학생, 학생-학생간의 관계를 통해서 교사와 학생은 자신의 존재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이러한 교사-교사, 교사-학생, 학생-학생간의 관계의 질과 수준은 대화의 내용과 수준에 따라서 달라진다. 둘째, 학교 장면에서 교사-교사, 교사-학생, 학생-학생 관계에서 추구하는 목적과 목표는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것들을 조화롭게 조정하므로 학교의 공통의 목표 달성을 위한 대화가 방법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교사-교사, 교사-학생, 학생-학생 관계에서 사용하는 말의 내용에 따라 듣는 쪽의 의미 해석이 달라지게 되며 이로 인한 교사-교사, 교사-학생, 학생-학생 관계의 수준이 변할 수도 있다. 표현하는 언어는 자신의 세계관이며 가치이므로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대화를 하여도 해석하는 관점은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효율적인 대화의 원칙을 활용하여 원하는 전달과 이해를 위한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기법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교사-교사, 교사-학생, 학생-학생간의 의도와는 무관한 의미와 의도가 전해지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송신자의 부호화된 메시지를 수신자가 충분히 바르게 지각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보충자료인 그림, 의견서, 구체물, 사진 등의 자료를 첨가하여 구체적으로 대화하는 요령이 필요하다. 둘째, 대화는 교사-교사, 교사-학생, 학생-학생사이의 상호작용 과정이다. 대화의 효과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송신자와 수신자의 동시 상호작용 반응인 피드백이 원활하게 실시되어야 한다. 셋째, 교사-교사, 교사-학생, 학생-학생간에 원하는 대상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자료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대화를 조정 및 통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넷째, 교사-교사, 교사-학생, 학생-학생간에 상대방, 특히 학생의 처지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대화를 하게 된다면 메시지는 원래의 의미를 찾기 어려울 수 있다. 교사로서 학생의 경험, 사고, 감정 등에 대한 공유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효율적인 대화는 교사-교사, 교사-학생, 학생-학생간에 너와 나의 지금-여기의 만남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인간관계의 한 영역임을 인식해야 한다. 대화 그 자체가 관심과 의미의 대상이 아니라 보다 심화되고 긍정적인 대인관계 형성을 위한 기본적 요인으로서 대화를 생각해야 한다. 학교에서의 삶 자체가 교사-교사, 교사-학생, 학생-학생간의 대화의 흐름 속에 있다는 점을 심도있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yjvision@hanmail.net



## 단소, 더 쉽게 가르쳐 보자

김 순 열

사천 노산초등학교 교사

### 1. 좋은 단소를 골라보자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단소는 대나무로 만들어진 악기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악기가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된 제품 중에서는 보관하는 방법에 따라 1단, 2단 분리형, 3단 분리형 3종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재용으로는 1단으로 된 플라스틱제품을 권하고 싶습니다.

대나무로 된 악기들은 만드는 사람에 따라 음정이 약간씩 차이가 있으며 가격도 비싼 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소리내기가 플라스틱제품보다 어려운 편입니다. 플라스틱 재질 제품은 2단, 3단 분리형은 자주 사용하다 보면 연결부분에 문제가 자주 생깁니다. 그래서 소리 내기도 비교적 쉽고 튼튼한 플라스틱 1단으로 된 단소가 초등 교재용으로는 적당합니다.

**\*\*악기를 만드는 회사에 따라서 음높이나 음색의 차이가 아주 조금씩 납니다.**

기왕이면 같은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면 반에서 같이 연주할 때 튀는 소리 없이 같이 연주하기에 좋습니다.

### 2. 바른 자세를 잡아보자

보통 책상 앞에서 연습을 하다 보면 책상 위에 팔꿈치를 기대게 되어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면대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책상을 치우고 개인당 1개나 2인 1조로 보면대를 이용하면 바른 자세 연습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단소뿐만 아니라 다른 악기 연습을 할 때에도 보면대를 이용하면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단소의 경우 의자에 앉아서 연습하는 것 보다는 바닥에 앉아서 연습하면 더욱 국악 분위기가 나겠지요. 이럴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국악용 보면대를 이용하면 더욱 좋습니다. (일반 보면대 높이를 낮추어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3. 소리를 내어보자

단소소리를 낼 때에는 지공을 막지 않은 상태에서 「汰」 소리 내는 연습부터 합니다. 汰음이 나게 되면 차례로 한 구멍씩 막으면서 汰, 潢, 無, 林, 仲소리를 내도록 하면 됩니다.

처음 소리를 낼 때에는 빈 병이나 페트병을 이용하여 소리내기 연습을 하면 소리가 나는 원리를 쉽게 알 수도 있고 재미도 많이 느껴 쉽게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 4. 좀 더 쉽고 멋지게 연주해보자

#### 1) 장구 장단과 노래(민요)를 먼저 지도하면 효과적입니다.

장구 장단과 노래(민요)를 먼저 배우게 되면 박자와 리듬감을 쉽게 익힐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쉽고 멋진 연주를 할 수 있습니다.

가끔씩 보면 장단과 노래, 악기를 따로 따로 가르치는 경우가 있는데 같이 가르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었습니다.

#### 2) 단소를 더욱 멋있게 연주하기 위해서는 악보에 나오는 각종 기호, 부호(임시변화표, 표현부호, 시김새)에 유의해야 합니다.

서양 음악의 기호나 부호에는 익숙하지만 우리 악보에 나오는 기호나 부호에는 아직도 익숙하지 않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주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우기가 쉽지 않지만 연습할 때나 궁금할 때 한 번씩 찾아보고 꼭 지도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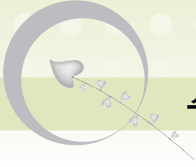
### 5. 소금도 한 번 연습해보자

어느 정도 단소를 연주하게 되면 심화 학습의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합니다. 이 때에는 어려운 곡을 주어서 연습하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소리 내는 방법이 비슷한 다른 악기를 연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 우리 악기 중에서는 소금이 적합합니다.

소금은 단소와 소리를 내는 방법이 거의 같지만 음역이 단소보다 넓어 보다 다양한 곡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가격도 플라스틱 제품은 그리 비싸지 않아서(5,000원 정도) 쉽게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 협동학습의 첫걸음 기초구조를 알자!

이 인 섭

거제 장목초등학교 교사

구조란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사이의 상호 작용 방식이나 틀을 의미한다. 구조 중심의 협동 학습을 강조하는 Kagan은 다양한 협동학습 수업 기법들을 협동학습 구조라는 개념으로 이해한다. 쉽게 말해 구조란, 협동학습의 이론과 원리를 바탕으로 수업시간에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간단하고 재미있는 수업 기법이라 할 수 있다.

학년 세우기, 모듈 세우기, 암기 숙달, 정보 교환, 사고력 신장, 의사소통 기술 등의 구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이 되는 기초구조부터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 1. 생각-짝-나누기(Think-Pair-Share)

일반 수업 장면에서, 어떤 주제나 문제에 대하여 대답을 듣고자 할 때 교사가 한 학생을 지명하여 발표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은 대답을 해야 하는 아동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혹 아동이 답을 모르거나 또는 잘못하는 경우 정의적으로 상처를 입게 되며, 교사로서도 수업을 진행해 나가기가 곤란해지는 경우가 자주 있다. 그러나 생각-짝-나누기 구조는 이러한 문제점을 간단하게 극복하며, 모든 학생들이 차별하게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

생각-짝-나누기의 단계는 매우 단순하다. 하지만 단계 속에는 깊은 교육적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① 생각 단계 - 교사가 학습과제를 제시하고 혼자서 생각하는 시간을 준다. 그 주제에 대하여 일정 시간을 주어 생각하게 하고 이를 공책에 기록할 수도 있다.

② 짝 단계 - 모듈 안에서 두 명씩 짝을 지워 주제나 문제에 대하여 혼자 생각하고 정리한 내용을 서로 말한다.

짝 구조를 쓰게 되면 모든 학생들이 누구나 한번씩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누구나 한번씩 친구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③ 나누기 단계 - 짝과 의논한 다음 모듈 또는 학급 전체에 자신의 생각을 말하게(발표) 하는 것이 '나누기' 단계이다.

## 2. 번갈아 말하기, 쓰기, 가르쳐 주기

‘번갈아’는 짝, 2명 활동을 말한다. 협동학습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2명 짝활동을 먼저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것이 좋다. 그래야만, 4명 모둠을 만들어서 활동하는 다른 구조들을 적용할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다.

① 번갈아 말하기- 너 한번 나 한번 계속 말함으로써 짝과 함께 다양한 답을 생각해 내게 한다. 교사는 다양한 해결책, 방법이 있을 수 있는 문제를 제시하고, 학생들은 짝을 지어 번갈아 가면서 한번씩 해결책을 말한다.(예: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재 번갈아 말하기)

② 번갈아 쓰기 (준비물 : 종이 한 장, 연필 1자루) - 교사는 다양한 해결안이 있는 문제를 제시하고 학생들은 짝을 지어 번갈아 가면서 해결에 도움을 줄 만한 답들을 종이에 적는다.

(예: 5학년 -시간을 나타내는말, 4학년 - 전지를 사용하는 기구 등)

③ 번갈아 가르쳐 주기- 일제식 학습에서 이루어졌던 개인풀이가 아니라 짝과 함께 풀고 서로 가르쳐 주는데 의미가 있다. 교사는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는 문제를 제시하고 1번 학생이 문제를 푼다. 2번은 지켜보면서 가르쳐 주거나 맞으면 칭찬해 준다. 역할을 바꾸어 계속 해결한다.

(예: 수학익힘책 짝점검하기)

## 3. 돌아가며 말하기

단순하게 정답이나 생각을 돌아가며 이야기 하는 것이다. 교사는 다양한 답이 있는 질문 또는 주제를 제시하고 모둠별로 학생들은 정해진 시간 안에 자신들의 생각을 돌아가면서 말로 표현한다.(예: 주제에 대한 내 의견 말하기 등)

## 4. 돌아가며 쓰기 (준비물 : 종이 한 장, 연필 한 자루)

돌아가면서 쓰기는 여러 과목에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수업에서 예측 가능한 상황을 만들거나 반복 학습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교사는 답 또는 방법이 여러 개인 과제를 제시하고 모둠별로 학생들은 종이를 돌리면서 자신들이 생각해낸 답 또는 해결책을 쓴다.

# “샘 들은 내보고만 그래요.”



창원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사무국장 노미애

영이는 학교에서 학교폭력, 가출, 무단결석, 교사에게 대들기 등으로 여러 차례 징계를 받은 아이이다. 영이는 수업 중에도 같은 반의 다른 아이가 선생님께 야단을 맞으면 그것이 마치 자신의 일인양 나서서 선생님께 대든다. 영이의 말투는 항상 싸우듯 통명스럽고 화난 목소리다. 영이랑 이야기를 하면 왠지 상담자인 나도 주눅이 들고 말하기가 조심스럽다.

어느 날 이 점에 대해 영이랑 이야기를 나누었다.

상담자: 영이야! (영이의 말투를 흉내내며 화난 목소리로 쓰아붙이듯) “이거 해요?” 이렇게 말하니깐 꼭 나한테 화가 난 것 같애

영이: (통명스럽게) 아닌데요

상담자: 아~ 아니구나. 니가 아니라고 하니깐 믿기는 하겠는데, (영이처럼 통명스럽게) “아닌데요” 하니깐 왠지 여전히 화난 사람 같아 긴장이 돼.

영이: (통명스럽게) 내 말투가 원래 그래요. 내 말투 때문에 친구들도 싸가지 없다고 해요 친구들도 싫어하는데 그래서 고칠려고 하는데요, 진짜 안되요. <친절하게 말하는 거는> 정말 이상해서 못하겠어요. 저도 미치겠어요. 제가요 정말 고치고 싶은데요 이것만은 안돼요. 내 말투 때문에 제가 이렇게 힘들어 한다는 걸 샘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내 말투가 그런거지 마음이 그런게 아니잖아요(한숨을 쉬며) 아무도 몰라요. 포기했어요. 안되는 걸 어떻게 해요.

영이는 자신의 말투가 관계(교사와의 관계, 친구관계 등)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걸 안다. 고치고 싶기도 하다. 그런데 말버릇을 고치자니 평소엔 안하던 짓이라 어색하고 쑥스럽다. ‘남들이 어떻게 볼까’ 마음이 쓰여 도저히 용기가 안난다. 남들은 다소의 어색함을 무릅쓰고 할 수 있는 일이 영이에게는 너무도 어렵고 힘든 일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영이는 대인관계 능력이 무척 떨어지는 아이임을 알 수 있다. 화가나면 참지를 못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예측하지 못하며 현실감 또한 떨어지는 아이다.

또한 영이는 사람들이 자신이 잘못된 것보다 더 많이 싫어하고 무시한다고 생각한다. 이해해주는 사람 없고 늘 비난하는 사람뿐이란단다. 영이는 무엇보다도 사람들로 부터 인정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고 또한 잘해보고자 하는 소망이 있다. 그러나 영이의 이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공격적이거나 회피적인 행동으로 인하

여 상대방에게 전해지지 않고, 오히려 버릇없고 무례하며 끊임없이 상대방을 좌절시키는 어쩔 수 없는 아이로 인식되게 만든다.

결국 영이의 다양한 노력(마음 속에서 잘 해보고자하는 마음을 포함하여)은 실패와 좌절로만 남게 된다. 이런 좌절의 경험은 자신에 대한 상(표상)이 부정적이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신뢰감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자기상이 부정적이고 타인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면 여러 복잡한 감정(억울함, 분노, 좌절, 실망, 두려움 등)들이 영이를 지배하게 된다. 이런 감정의 지속적인 영향으로 영이는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가 어렵게 된다. 때문에 이런 경우 표면적으로 드러난 아이들의 문제행동을 수정하기 위해 충고하고 조언하는 것으로는 아이들의 행동변화를 돕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영이처럼 학교생활에서 부적응을 보이는 아이들에게 그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어렵고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이들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교사, 부모 등)이 좀더 관대하고 여유로울 필요가 있다.

그들과 대화를 할 때는 아이의 입장에서 그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특히 유의 할 점은 아이의 실망되고 좌절되는 마음과 노력하고 애쓰는 마음을 함께 봐주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영이와의 대화를 예로 들어보면,

영이 : 쌤들은 내보고만 자꾸 그래요. 내가 잘 할 때는 말 안하고, 못하면 막 뭐라하고…….

잘 하고 싶은 기분이 들겠어요? 나도 참고 억지로 하는데,

상담자 : 무척 억울하고 속상했구나.

영이 : 그렇지요. 아무리해도 소용없어요. 쌤이 내만 싫어해요.

대화가 이렇게 진행된다면 아이의 우울하고 실망되는 마음만을 지각하게 되어 자기 안의 기대되는 모습을 지각하기 어려워진다.

상담자 반응을 다시 바꾸어 보면,

상담자 : 억지로 참고 할려고 하는 걸 보면 너도 참 잘하고 싶구나.

영이 : 그렇지요. 잘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요, 잘 안되요.

상담자 : 그랬구나. 마음 같이 잘 안되었구나. 어떤 노력을 해보았니?

(이하 생략)

두 번째 예시처럼 아이의 기대감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아이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특성을 더욱 자극하게 되어 그러한 행동 특성을 더 자주 드러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아이의 여러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것은 아이를 더욱 합리적이고 적응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게 된다. 이러한 과정없이 바람직한 행동만 강조하면 아이는 자신이 이해받지 못하고 야단만 맞는다는 생각에 더욱 좌절하고 소외감을 느끼며 반항하게 될 것이다. 아이들이 좋은 아이로 성장하길 바란다면 그렇게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게 먼저다.

“억울하고 속상한데도 잘 해 볼려고 애 쓰는걸 보면, 네가 정말 잘하고 싶어 한다는 걸 알겠다”라고 있는 그대로 봐 주는 것으로 아이의 성장에너지는 힘을 발휘할 것이다.



## 사

## 이버가정학습 영어콘텐츠!

영어에 대한 재미/자신감/놀라운 실력을 보장합니다.



박 상 섭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사

## 1. 시작하며

새 정부의 교육관련 국정지표인 인재대국의 핵심과제 중의 하나가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제화·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영어를 활용한 의사소통 능력은 국가의 발전과 개인의 생존경쟁을 위한 필수요소가 되어, 조기유학과 해외어학연수 등으로 해마다 외화유출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2만여 명에 이르는 초, 중, 고 유학생 가운데 60% 이상이 초등학생이다.

이러한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 즉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영어와 친해지기 위한 전략의 영어노출시간 확대를 위한 다양한 학습환경과 프로그램 등의 제공을 서둘러 확대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방안 중에 하나가 바로 사이버가정학습의 영어학습콘텐츠 제공이다.

우리 연구정보원에서만 제공하는 영어과 학습용 콘텐츠만 해도 양과 질적인 면에서 비교해볼 때 결코 뒤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 활용은 그렇지 못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재미학습’을 통해서 가정학습용으로 서비스 하다 보니, 사교육시스템에 비해 학생들의 활용을 책임지고 관리하거나 통제하기가 어렵고, 짜여진 방과후 학습들에 지친 아이들의 관심도조차 낮아 ‘좋은 콘텐츠’라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가 현장 선생님들이 교실 수업과 연계하여 활용하고 안내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어떤 종류의 콘텐츠들이 있는지 알고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이버가정학습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영어학습콘텐츠들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2007학년도에 개발한 초등학교 4~6학년 공용 Reading 중심의 콘텐츠를 자세히 들여다보자.

## 2. 어떤 콘텐츠들이 있나

콘텐츠명	활용 대상	차시수	주요특징	비고
교과서의 기본, 보충, 심화학습용 콘텐츠	초 3~고 1	-	-교과서 내용을 사이버가정학습용 콘텐츠로 개발하여 서비스	16개 시·도가 분담 개발
영어로 배우는 수학 및 영어	초 1~3학년	32	-미국 현지 유·초등학생들이 사용하는 학습용 콘텐츠	민간개발 라이선스 구입 2010. 2월
방학용 초등영어 콘텐츠	초 4~6학년	20	-미국 현지 Reading 중심학습	16개 시·도 공동 확보
방학용 중학영어 콘텐츠	중 1~3학년	20	-미국 현지 Reading 중심학습	
Junwoo's Reading Adventure	초 4~6학년	45	-읽기중심 에듀테인먼트형 -영어로 학습하는 영어 콘텐츠	우리도 개발
단계형 영어평가	초4~ 중3	5단계 (600)	-수준별 단계를 달리하여 문제풀이 중심의 영어학습	서울교육연구 정보원 개발
영어단어학습장	초, 중 공용		-알파벳순의 급수별 핵심단어 공부	부산교육연구 정보원 개발
생활영어회화 학습	초, 중 공용	50	-일상 생활이나 외국 여행 중심의 상황별 회화	충북개발
속칭 영어학습	중, 고등용	-	-사시중심의 학습소재를 중심으로 빠르게 듣기, 독해 -영어듣기평가, 온라인 해설 등	민간개발 라이선스 구입 2009. 2월

위의 모든 콘텐츠 들은 현재 재미학습에서 서비스되고 있다. 자세한 정보는 재미학습의 <재미정보>메뉴의 <콘텐츠>방에서 얻을 수 있다.

## 3. Junwoo's Reading Adventure 콘텐츠의 소개

앞서 안내한 것처럼 사이버가정학습에서 서비스 하는 콘텐츠는 참으로 다양하며 유용하다. 특히, 2007학년도에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읽기중심의 초등학교 심화학습형인 Junwoo's Reading Adventure는 모두 9개 주제에 5차시씩 구성되어 기존의 콘텐츠와 차별화되는 몇 가지 특징과 학습하는 재미를 만끽할 수 있는 콘텐츠다.

그리고 '준우'의 가족이 미국 여행을 배경으로 미국 친구들과 문화체험 및 이해의 스토리 중심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영어공부라는 인식보다 학습의 호기심과 동기를 지속시켜 준다.



## □ 개발 전략

- ①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과 영어 읽기(Reading) 심화학습이 필요한 학생들의 욕구 충족을 위한 초등 영어교육과정과 연계한 심화형 읽기자료
- ② 교사나 보조자의 큰 도움 없이 학생 혼자서 학습할 수 있는 질 높은 영어학습 콘텐츠를 제작하여 영어 사교육 수요 흡수로 사교육비 경감
- ③ 언어의 토대가 되는 다양한 어휘와 표현을 제공하여 영어 Reading 능력 강화

## □ 개발 콘텐츠의 특징

- ① 스토리중심 에듀테인먼트형 콘텐츠  
교육과 놀이를 합친 콘텐츠의 개념으로 학습의 흥미와 재미를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영어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였다.
- ② 영어로 학습하는 영어 콘텐츠  
영어 나레이션과 지시문으로 학습을 안내하여 짧은 접속 시간 내에 가능한 많은 영어에 노출되도록 구성하였다.
- ③ 관심사항 중심의 주제 선정과 전개  
학생들이 가장 흥미를 느낄 수 있는 9개의 주제를 선정하여 이야기식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매 주제별 마지막 차시는 단원 평가 및 심화학습 내용을 담아 영어학습에 자신감을 갖게 하고 있다.
- ④ 학생 흥미를 고려한 차시 구성  
하나의 차시는 5개의 학습 자원으로 구성하고, 학습의 관념을 벗어나 호기심의 발동으로 동기유발이 되고(들어가기), 게임과 애니메이션 중심으로 본 학습의 핵심단어와 표현들을 준비하며(학습 전 활동), 심화된 읽기학습과 원어민 음성 접근 등으로 학습 전개하며(본학습), 학습한 내용은 게임이나 다양한 활동을 통해 복습 및 평가(학습 후 활동)하여 마지막으로 학습한 내용을 일기쓰기, 노트 요약 등으로 정리(정리하기) 한다. 그리고 읽기에 자신 있는 학생은 본학습 활동을 바로 시작해도 무방하다.

## □ 효율적인 활용 방안

- ① 처음부터 차근차근  
본 콘텐츠는 이야기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각 단원의 첫 차시부터 차근차근 공부해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② 골라 읽는 재미가 솔솔  
주제가 흥미로운 단원이나 차시부터 선택하여 공부해도 학습에 어려움이 없도록 구성하였다.

## 4. 맺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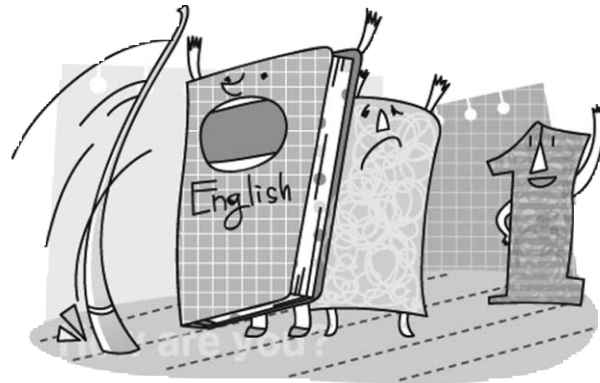
방과 후 학생들의 교문 밖 모습을 보노라면 주-육 늘어선 학원 대기차량에 어느 덧 당연한 일상인 듯 싱글벙글거리며 올라탄다. 이내 뽕뽕이며 자리를 떠나는 봉고차는 뒷유리에 OO수학 혹은 OO영어 학원을 자랑하

며 내달린다. 그저 안타까움만 물어 갈 뿐이다.

사이버가정학습 영어 콘텐츠로 하루 혹은 이틀마다 20~30분만 필요한 내용들을 접하더라도 봉고차 속에 내몰리는 학생들은 많이 줄어 들 것이라 본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학교 현장에서 새미학습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콘텐츠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지속적으로 학습하도록 현장 선생님들의 권유와 관리가 절실하다.

특히 초등의 Junwoo's Reading Adventure 콘텐츠는 해외 유학의 경험과 영어교육에 정렬적인 선생님들의 8개월이 넘는 고민과 실천경험을 토대로 원어민과 대학교수님의 검토를 거치며 완성한 콘텐츠이기도 하다.

교실 수업과 연계하여 이들을 활용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실력은 물론 새 정부가 표방하는 영어 공교육 완성에 좀 더 가까이 하여 공교육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리라 생각한다.







교장 이영근



## I. 다목적 서버실 운영 필요성

일반 학교에서는 서버실이 홈페이지 및 네트워크 관리를 목적으로 운영한다. 그러나 IT 특성화 고등학교인 본교는 IT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기존 학교와 달리 아래와 같은 다양한 목적을 위한 서버실 운영이 절실히 필요하다.

- (1)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양성의 필요성 증대
- (2) IT 자율학교 특색사업인 1인 1포트폴리오 제작 및 보관 필요성 증대
- (3) 학교기업 운영을 통한 창업 마인드 고취의 필요성
- (4) 가상화 기능 서버를 활용한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 필요성

## II. 다목적 서버실 구축

### 1. 구축 경과

본교 학교발전 T/F팀을 구성하여, 선진지 고등학교인 선린인터넷고교, 한국애니메이션고교, 한국디지털미디어고교를 방문하여 학교 장기발전을 위해 다목적 서버실의 구축 필요성을 인식하고 한국 Sun Microsystems사와 한국 Hewlett-Packard사를 다양한 경로로 접촉하여 서버 10대(3억 7천만원)를 기증을 받아 다목적 서버실을 구축하였다.

## 2. 서버실 주요 장비 구성

가. Sun Microsystems Blade 서버 2대 및 단말기 Sunray 31대

- 1) SunRay Server로 통하여 모든 OS환경을 구성이 가능
- 2) Sun Ray 270을 통하여 학생들의 고성능 컴퓨터 수업

나. H, P ProLiant DL360 G5 서버 5대

- 1) 포트폴리오 작품 저장용(스토리지)
- 2) 전자상거래 구축 실습 및 학교 기업 운영 (쇼핑몰 서버)
- 3) ERP(전사적 자원관리) 수업용(ERP 서버)
- 4) 학교홈페이지 및 학생 홈페이지 탑재용(WEB 서버)

다. 기존 서버 3대

- 1) IBM xSeries250 : 학생계정용
- 2) 후지쯔 XT200 : 메신저용
- 3) Intel Xeon2,4 Dual : 자료 백업용

## III. 다목적 서버실 운영

다목적 서버실이 구축됨으로써 ERP와 Shopping Mall 제작, 프로그램 언어를 각 계열의 특수성에 맞게 학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본교 특색사업인 1인 1 Portfolio 작성, 서버실과 연동한 학습방법 개선, Solaris 기반 프로그램 언어(JAVA)를 교육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가 구축되었다. 또한 유능한 프로그래머 양성과 지역사회와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고 인적 Network을 구축하게 되어 네트워크 기반의 유비쿼터스컴퓨팅(UC:Ubiquitous Computing)시대를 주도하는 선도자를 다수 배출하게 될 것이다.

### 1. 전교생 1인 1 포트폴리오 제작

포트폴리오 1인 1제작은 본교의 특색사업으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습한 내용을 취업, 진학, 공모전 출품 등 특정한 목적에 부합되도록 작성케 하여 자신의 능력이나 경력을 정확히 제시하도록 도와주고 지금까지의 학교 교육활동의 결과물을 효과적으로 파일링하고자 한다.

### 2. 홈페이지 운영

정보화 시대의 학교는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르고 재택 학습의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사이버학습센터의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부여되고 있다.

사이버상의 교수학습체제의 구축은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학습 자료실을 통하여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 3.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서버 운영

본교 ERP 서버 운용의 목적은 기업경영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 및 기능을 습득하게 하여 경영의 각 분야에 종사할 유능한 인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배양하여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대학 진학 및 각종 기업체 입사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고자 한다.

### 4. Shopping Mall 서버 운영

본교의 E-비즈니스과의 전자상거래 수업을 통하여 전자상거래 이론 및 실무를 익혀 쇼핑몰을 구축하고 운영할 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양성하고자 한다.

### 5. JAVA 프로그래밍 교육과정 운영

전문 프로그래밍(JAVA)실 운용의 목적은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정보기술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및 기능을 습득하고자 한다.



## - 시스템 현황 -

설치장소 : 다목적 서버실, 멀티미디어컨텐츠 1실  
 서버실 - Sun Blade™ X6220 Server Module  
 멀티미디어컨텐츠1실 - SunRay270 31대(운영체제:Solaris 10 64Bit)

## 6. 가상화 기능 서버 운영

가상화 기술은 물리적으로 다른 시스템을 논리적으로 통합하거나 반대로 하나의 시스템을 논리적으로 분할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케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서로 다른 기종의 서버와 스토리지도 연결해 쓸 수 있으며 한 시스템에서 파티셔닝을 통해 업무간 간섭 없이 서로 다른 종류의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도 있다.

Windows Server 2003 과 Linux Server와 그리고 네트워크 장비와 연동할 경우 물리적인 장비가 많이 필요하다. 이를 가상화 기술을 이용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면 실제와 같은 교육효과를 거둘 수 있다.

## IV. 다목적 서버실의 미래

### 1. 대학 및 산업체의 맞춤형 인재 육성에 주력한다.

다목적 서버실은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기 이전에 선진 기자재의 경험 및 활용의 폭을 확대함으로써 대학 진학 및 취업에 있어 자신감을 가지게 될 것이다.

### 2.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java프로그램 운영에 중점을 둔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교 교육과정 개편의 중심에 프로그래밍의 비중 및 역할을 높이며, 특히 solaris 운영을 통한 java프로그램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

### 3. 산 · 학 · 연 협약의 새로운 모델을 정립한다.

다목적 서버실 활용을 통한 우수 인재를 육성하여, 실제적인 대학과 고등학교간의 연계를 통하여 기업체와 취업약정을 체결하는 Win-Win-Win 전략의 새로운 산 · 학 · 연 모델 정립을 구축하게 될 것이다.

능력있고 창의적인

정보기술전문인 양성





## 인사하는 습관을 기릅니다.

진양고등학교 교장 김 만 희

인사는 친절의 첫 걸음이며, 예절의 기본이며 인간관계의 출발입니다.

나는 친절이란 말만 생각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작은 미소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듯, 친절은 우리의 몸 전체를 따뜻하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친절한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까닭은 친절은 사람을 따뜻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여 모든 것을 잘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무례함을 너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외국을 여행할 때 느낀 것 중 하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머리도 좋고 부지런한 성품을 지닌 우수한 민족이지만, 선진국과 확실한 차이는 친절의 차이였습니다. 그들은 친절한 인사와 함께 'You're welcome.', 'No thank you.', 'No problem.' 등의 말이 습관화되어 있었습니다.

새뮤얼 스마일즈씨는 “우리가 생각의 씨앗을 뿌리면 행동의 열매를 맺게 되고, 행동의 씨앗을 뿌리면 습관의 열매를 맺는다. 습관의 씨앗은 성품을 얻게 하고 성품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라고 했습니다.

친절택시로 유명한 일본 MK택시 유태식 부회장은 “기업에서 친절은 곧 ‘돈’이며 그 친절은 ‘인사’부터 시작된다.”라고 했습니다.

좋은 습관은 훌륭한 인물을 만듭니다. 노예는 노예근성(습관)이 있고, 왕자는 왕실의 습관이 있고, 졸부는 졸부 근성이 있고, 훌륭한 민족은 훌륭한 문화가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비전과 좋은 언어와 성실과 평생 학습하는 좋은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한 노부부가 묵을 곳을 찾아 작은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그 호텔 사무원은 겸손한 어투로 방이 다 찼다는 말과 함께 그 도시의 모든 호텔이 만원이라고 알려줬습니다. 덧붙여서 “이 빗속에 그냥 둘러보낼 수 없으니 괜찮으시다면 제가 쓰는 방에라도 묵고 가시죠.”라고 했습니다.

노부부도 처음엔 사양했지만 그 사무원의 친절에 감동받아 하룻밤을 잘 쉬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계산을 하면서 “당신은 미국 전역에서 제일 좋은 호텔을 관리할 사람이군요.”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몇 년 후 그 사무원은 노부부의 초청을 받아 뉴욕으로 갔습니다. 그 노인은 맨해튼 중심가로 그를 데리고 간 뒤 “이것이 바로 당신에게 관리를 맡길 호텔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호텔은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이었고 노인은 바로 호텔주인인 윌리엄 월도프 아스토였습니다. 친절을 베푼 사무원은 조지 볼트로 이 호텔의 첫 지배인이 되었습니다. 작은 친절이 큰 축복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김순권>

“실력의 부족은 용서할 수 있어도, 무례함은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절의 중요성을 잘 강조한 말입니다. 회사에 처음으로 직장생활을 하는 신입사원들은 인사법을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인사성 인사하는 습관 하나만으로도 자신의 능력을 평가받는다고 합니다. 인사는 애사심의 발로이고 존경심의 표현이며, 우애의 상징이고, 자신의 인격과 교양을 밖으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사(人事)는 사람의 일이요 사람됨의 기본입니다. 밝은 미소로 인사해 보십시오. 좋은 습관은 인생의 좋은 결과를 낳게 할 것입니다.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 홀쩍 사라버린 아이를 바라보며

진해고등학교 학부모 김 현 자

우리 아이가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입학 첫날부터 정상수업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야간 자율학습까지 하고 온다는 것이었다. 어찌 잔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지만 학교 방침이니 그러려니 하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 켠으로는 ‘이 녀석도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으로 3년의 시간을 죽기 살기로 공부만(?) 하면서 살아야 하는구나! 싶었다. 그래 어찌라?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했듯이 열심히 해 보거라 하는 심정으로 “입학 첫날은 어땠어?” “야! 너도 이제는 공부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겠구나! 하루 종일 학교에 있게 되면 공부밖에 뭐하겠어? 열심히 한번 해보자.”하며 격려와 힘듦에 대한 공감을 표현했다.

진해 지역에서는 고등학교 진학에서도 나를 고민을 해야 하는 점이 있다. 마산·창원지역으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시내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데 아주 고민스러운 분위기였다. 부모 입장에서는 나름대로의 정보나 제공할 뿐 어떤 선택을 강요하거나 권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결정은 어디까지나 학교를 다닐 당사자가 할 몫인 것이다. 한동안 각각의 진로에 대해서 장단점을 열심히 체크하고 비교하고 또 몇 번씩 선택을 번복하더니 최종 결론이 지역 내에 있는 진해고등학교를 선택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유인즉 학교가 가까워서 통학시간이 절약되고, 체력소모를 줄일 수 있다는 것 등을 꼽았다. 본인의 선택을 십분 존중하고 입학할 시켰고 고등학생이 되고 2달이 채 되지도 않은 현시점에서 아이의 모습은 많이 변화되었다. 말하자면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쪽으로 많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그동안은 공부에는 아무런 열의도 없었고 집에서 공부라고는 하지 않는 터라 학교 시험이 언제인지도 엄마가 모르고 지나가기가 일수였으나 그 성적이라도 유지되는 것이 놀라울 정도였다. 주위에는 친구도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친구 그 자체에도 관심이 없는 듯 했고, 시기적으로는 분명히 사춘기이지만 사춘기적 행동 특성도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 표면적으로는 문제되는 행동이 일체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어떤 것에도 흥미가 없는 듯 했으며 아들 녀석의 말에 의하면 귀차니즘에 빠졌대나 어떻대나 하면서 세상의 방관자 같은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부모 입장에서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런 녀석에게도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작품세계에 빠지는 등 독특한 독서 성향이 보였다. 그리고 특별히 아주 감명 받은 책 한 권을 통해서 자신의 관심분야를 가닥 잡는 듯 하더니 그 특정 분야 쪽으로 연구해 보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그렇다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아이는 결론을 찾는 듯했다. 그러면서 공부에도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열의가 보였고 생활도 활기차고 적극적으로 변하면서 친구들과의 관계도 친밀하게 지내는 친구가 늘어나고 특정 친구는 집에 데리

고 와서 같이 공부도 하겠다고까지 하는 놀라운 변화였다. 그런 기간 중에 수학여행을 간다는 안내문을 받았다. 아이들 면학 분위기를 위해 1학년 때 일찌감치 다녀오겠다고 하는 선생님의 설명이 있으셨다.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했다. 암튼 아이의 여행을 위해 이런저런 준비를 해서 챙겨 보냈는데 여행을 떠날 때 가족들이 용돈을 줬지만 용돈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못하고 보냈었다. 내심 아이를 믿어보자 싶은 심사에서였다. 그러나 보내놓고 나니 걱정 되는게 사실이었다. 무절제하게 낭비하지는 않을까 하는 노파심이였다. 어찌어찌 사용하라고 좀 일러서 보낼 걸 그랬나? 하는 마음도 없는건 아니었지만 그러나 어찌랴 아이는 이미 떠났고, 여행지에 있는 녀석에게 그런 당부까지 하기엔 아이를 너무 못미더워 하는 듯해서 심기가 약간 불편해도 일단 지켜보기로 했다. 아이가 돌아 오던 날 엄마뉘의 선물은 평소 엄마가 좋아하는 차를 사 온 것이 제법 엄마의 기호도 알고 있다는 점이 대견하게 여겨졌다. 그리고 염려스러웠고 궁금했던 용돈에 관한 부분을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들아, 용돈은 항상 받은 저축을 하자고 했는데 수학여행 용돈은 어떻게 했을까?”

“십만원 통장에 넣었어요.” 대답은 간단하고도 명료했다. 엄마의 노파심이 기우였다는 것을 확인하게 해 주는 대답이 얼마나 고마웠던지 모른다. 절반의 저축이 아니라 정말 주변에 자신을 배려해준 분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인사의 선물과 개인용돈만 사용한 씬씀이가 돋보였다.

지금 학교생활을 활기차게 하고 있고 친구들과 더불어 즐겁게 지내고 있다고, 자율학습 시간에 어떤 친구 녀석이 자꾸만 수학문제를 물어 와서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할 만큼 친구를 배려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전해 들었다. 불과 몇 개월 전 엄마의 걱정거리들을 모두 털어내게 해 주었다. 아이가 자라는 과정에서 가끔은 엄마를 당황하고 속상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찾아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라고 믿고 기다리며 믿어주는 만큼 성장할 것이라고 믿으며 어느새 몸도 마음도 훌쩍 자라버린 아이의 모습을 대견스럽게 바라본다.





## 사람을 더 믿는 날

밀양여자중학교 2학년 강 유 립

어느 날인가 친한 친구들로부터 어이없는 소리를 들었다. 내가 2학년 부장선생님께 찾아가서, “선생님 2학년 교실에 음악 좀 틀지 말지요. 시끄러워서 공부에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이!” 뒤 대강 이런 소리를 했다는 것이다. 지금 점심시간마다 2학년 교실에만 음악이 나오지 않는 것도 그 때 문이란 소문이 파다하단다. 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라고, 몇 달간 그 선생님 찾아가 본 적도 없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곤 웃어버렸다. 참, 별 일도 다 있지. 욕 좀 들어 먹겠네.

그런데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한 모양이었다. 다들 어떻게들 수군거린다는가, 누군가 퍼뜨리고 다닌다는 말이 계속 내 귀에 들어왔다. 심지어는 어느 반 국어시간에 그 사건에 대해 토론을 한다는 소문까지 있었다. 반이 다른 친구들은 대부분 오랜만에 만나서 한다는 질문이 그런 내용이었고, 나는 그 때마다 해명하기 바빴다. 절대 아니라고, 그 선생님하고 제대로 얘기도 나눠 본 적 없으며, 또 누가 그런 소릴 하거든 아니라고 말 좀 해달라는 부탁까지 하게 되었다. 어떤 친구는 위로를 해 주고 격정해주고, 어떤 친구는 오히려 퍼뜨리고 다니고, 나는 걸핏하면 성질이 나 교실 밖에 머리를 찧어대는 상황이 며칠 반복됐다.

그러고도 그 황당한 얘깃거리는 시들해지지 않았는지, 나는 소위 ‘뒷담화’를 직접 듣는 지경에 이르렀다. 일부러 나 들으라고 한 말인지 나 있는 줄도 모르고 별은 말인지,

“장학금 받으면 다인가-.”

사람이 많은 틈에 누군가 그렇게 중얼거렸다. 짜증이 나서 미칠 지경이었다. 왜 내가 하지도 않은 일로 이렇게 욕을 먹어야 하나. 저 애들은 날 제대로 알고나 하는 소린가. 원망스럽기만 했다.

그런 일이 한두 번 더 있고 나서는 부장 선생님을 직접 찾아가 보기로 마음을 굳혔다. 그 선생님께서 농담처럼 흘린 말이 퍼진 것이라 짐작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선생님은 스스로 판단해서 노래를 틀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며, 그런 얘기를 흘린 적도 없다고 하셨다. 그러고는 공식적으로 ‘특정 학생 때문이 아니다’라고 해명까지 해 주셨다. 애매모호한 그 해명 덕택에 상황이 더 악화되는 듯 싶기는 했지만.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다. 여태껏 그래왔던 것처럼 나 역시 누군가의 뒤에서 몇 번인가 욕을 하기도 했고, 대체 누가 그 따위 소문을 퍼뜨린 것인가 조사도 해 봤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 욕을 하는 그 아이들을 원망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문이 마음 깊은 곳에 머물렀다.

‘나도 그랬잖아?’

그래, 나 역시 할 말이 없다. 내 욕을 해대는 아이들과 내가 뭐가 다를까. 잘 모르는 애 혹은 잘 아는 애를 소문만 듣고 잘근잘근 씹어대던 일, 욕하고 즐거워하며 깔깔거리던 내 모습이 나를 비웃는 것만 같았다.



‘그 땐 헛소문이 아니었잖아!’ 나는 스스로 항변했다.

‘소문이 사실인지 어떻게 알지? 난 내가 욕했던 애들하고 제대로 얘기해 본 적도 없어.’

‘나 혼자만 한 게 아니야! 다함께 욕했다고!’

‘날 욕하던 아이들도 <다함께>였어.’

.....

나도 똑같았던 것이다. 나도 수군거릴 줄 알았고, 부풀려질 대로 부풀려진 소문만 믿고서 사람 하나를 입으로 뭉갠 줄 알았다. 근거 없는 말 몇 마디에, 우정도 믿음도 쉽게 고개를 돌리곤 했다. 그러니 어떤 애들이 날 아무리 욕해도 나는 원망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저 애들도 내 앞에선 친절하게 웃을지 모르는 일이다. 그때, 나는 말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느꼈다.

아무 이유 없이 많은 이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무슨 년’에 ‘머리에 돌만 든 일간이’에 ‘찌질이’가 되고는 한다. 우리는 사실과 거리가 먼 소문을 그 소문의 당사자보다 더 신뢰할 때가 많다. 말은 오고가면서 거칠어지고, 풍부해지고, 없던 내용도 섞이곤 한다. 그래서 누구도 책임지지 못할 만큼 부풀려진다. 때론 그 말이 죄 없는 사람을 과멸로 이끌기도 한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남에 대한 말은 칭찬이든, 욕이든 깊이 생각하고 아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또한 진실성이 희박한 말 몇 조각에 친구도 믿음도 팔지 않기로 다짐한다. 우정과 믿음은 누군가 흘린 별 것 아닌 소문으로 잃어버리기엔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므로. 직접 이야기도 나눠 보기 전에 미워할 만큼 나쁜 사람은 세상에 없는 것 같다. 이제 내 삶에선 ‘소문’보다 ‘믿음’이 더 강한 것이길 바라며, 내가 말보다 사람을 더 믿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한다.





## 어린이를 살리는 문학

이오덕 지음 - 서울 : 청년사 <2008. 3월> 발행

- 이 책은 어린이문학의 정의부터 어린이문학을 살리는 방법, 아이들이 쓴 글과 어른들과 아이들이 쓴 잘못된 글들, 좋은 작가의 글과 생애, 좋은 어린이책을 선택하는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어린이문학을 어떻게 살려야 하며, 앞으로 우리말과 글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인지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돕는다. 어린이문학을 하는 사람들과 우리말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물론, 우리말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에게도 가르침을 선사한다.



## 피노키오 상담실 이야기

이지성 지음 - 서울 : 성안당 <2007. 11월> 발행

- 요즘 우리의 아이들은 학원 스트레스와 공부에 시달리고, 어른들의 사랑을 흉내내고, 친구들과 사이에서 왕따가 되고, 음란물에 멍들고, 인터넷 게임에 중독되고, 한 모금 담배 연기에 인생을 내뱉는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 상처 받다가 아이들은 결국 자살을 시도한다. 이 책은 자녀교육서, 자기계발서 베스트셀러 저자이자 현직 초등학교 선생님이 너무 일찍 세상에 지쳐 버린 아이들과 만난 이야기이다. 아이들 사이에서 피노키오 선생님으로 불리는 저자는 학교에 '피노키오 상담실'을 만들었고, 그곳에서 많은 아이들의 고민을 감싸 안아 주었다. 그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 주고, 학교 앞 문방구에서 500원짜리 컵 떡볶이로 아이들과 소통하는 가슴 따뜻한 상담이야기가 담긴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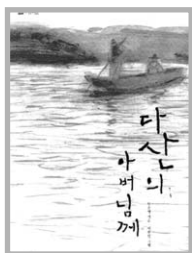
## 향기나는 서가



### 책을 읽는 방법

히라노 게이치로 - 서울 : 문학동네 <2008. 3월> 발행

- 저자는 슬로 리딩(천천히 읽기)의 최종목표가 '작자의 의도' 이상의 흥미로운 내용을 독자 스스로 자유롭게 발견해내는 '오독력'을 기르는 데 있다고 말한다. 여유롭고 느린 독서의 과정 속에서 얻는 창조적인 오독이 우리의 내면을 성장시키는 힘이라고 강조한다. 책은 슬로 리딩의 기초·실천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편에서 그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양에서 질로, 망리형 독서에서 선택적 독서로 전환하라고 충고한다. 속독을 통해 단시간에 많은 정보를 얻는 게 무의미하다고 논박한 뒤, 단지 '내일'을 위한 독서가 아니라 '오 년, 십 년 후'를 위한 독서가 슬로 리딩이라는 점을 자신의 경험에 녹여 찬찬히 풀어낸다.



### 다산의 아버님께

안소영 지음 - 서울 : 보림 <2008. 3월> 발행

- 다산의 아들들처럼 저자 안소영도 아버지 안재구 교수가 정치적인 이유로 감옥에 있던 시절, 우연히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를 접한 개인적인 경험이 쌓여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다산의 둘째 아들 학유의 시선으로, 유배지에 있는 아버지 다산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다. 특히 19세기 벽두, 정조라는 걸출한 군주가 죽은 이후의 사회와 그 속에 뜻을 굽히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의 안타까운 죽음, 죽음 뒤에 남은 가족들의 신산스러운 삶을 다산과 그 가족들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에게 권하는 책으로 정약용의 사상과 가족들의 모습을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교원지상갤러리



등 나무



- 한 마산우산초등학교 교장
- 경남 미술대전 초대작가
- 경남 미술대전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 역임
- MBC 경남여성회대회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 역임
- 성산미술대전 운영위원 역임
- 교원에능연구대회심사위원 역임
- 한국미술협회 회원, 경남서단회원

이 명 숙



「**학생**이 **행복**한 교육  
경상남도교육청이 만들어 갑니다.」

<http://www.gne.go.kr>